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향 미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포스트모더니즘과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의 방안

201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최 영 희

포스트모더니즘과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의 방안

김 향 미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최 영 희

인 준 서

최영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세계화, 다원화의 특징을 갖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빠르게 수용하기 위하여 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올바른 사고와 시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단군의 자손, 단일민족이라는 의식도 매우 강하고 맹목적인 국수주의에 빠지는 경우도 빈번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다양한 문화에 노출이 되는데, 그럴 때에 올바른 주체의식과 비판적인 사고를 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배경으로, 최근 다문화주의 교육은 한국 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인식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술 교육에서도 다문화주의에 대한 수업은 주로 타 문화의 작품 소개 및 감상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고와 문화를 인정하고 그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열린 시각과 사고를 갖출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문화주의적 교육방식으로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다문화주의의 배경이 되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인 미술 양식의 의미와 특징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행하였다. 그 다음으로 다문화주의 교육의 개념 및 영역 등에

대해 알아보고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을 현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내용과 접목시킨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바람직한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우리와 다른 타인에 대해 알아가며 편견을 버리고, 그들의 문화와 생각을 이해하고 인정함으로써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안목과 태도를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II. 다문화주의 이론적 배경	4
1. 포스트모더니즘	4
1)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	4
2)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6
3) 포스트모더니즘 미술	10
4) 포스트모더니즘의 미술교육	21
2. 포스트모더니즘과 다문화주의	22
III. 다문화주의 교육의 개념 및 실태	25
1. 다문화주의 교육의 개념	25
1) 역사적 관점에서의 다문화주의 교육	25
2) 다문화주의 교육의 개념	27
2. 다문화주의 교육의 현황	34
1) 다문화주의 교육의 실태	34
2) 다문화주의 교육 프로그램 실태	38

IV.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의 의의 및 필요성	41
1.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의 배경 및 의의	41
2. 다문화주의 미술교육과 사회재건주의	46
3.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의 영역	48
4.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의 접근과 학습 방법	50
5.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의 필요성	58
V. 다문화주의 미술교육 방안	60
1. 수업의 방향	60
2. 수업의 방법과 목표	61
3. 수업의 실제 - 본시 교수 학습 과정 안	63
4. 평가	70
5. 학습 보충 자료	75
VI. 결 론	82

참 고 문 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금은 사회, 문화, 교육이 밀접하게 상호작용 되면서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도 다문화적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인간 사회는 언제나 다양화되어 있었다. 다만 그 정도가 달랐을 뿐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 다양성이 재발견되고 크게 드러나는 것은 어떤 소수 집단이든지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상대성이 인정되고 용인되며 동등한 권리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미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단일 민족이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다문화 교육이 다인종 교육이라는 편견 때문에 소홀히 되었다. 그러나 다문화 시대적 양상이 점차 뚜렷해짐에 따라 자신의 문화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과, 가치,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미술은 한 시대의 문화와 사회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예술에 대한 일반인 또는 대중의 관심은 무척이나 높아졌고, ‘반 고흐’와 ‘모나리자’를 언급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지금은 문화 예술의 시대이다. 국가의 경쟁력조차 문화 예술로 평가된다고 한다. 또한 과거의 모더니즘을 넘어 절대적인 의미를 부정하고 부분적인 절충을 필요로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교육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다.

미술 교육에서는 1986년에 와서 다문화주의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새롭게 등장하였고, 미국의 다양한 인종들은 백인과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며 이것을 교육에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다문화 교육을 도입하여 1997년 7차 교육과정부터 교과에 반영했지만, 13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학생들은 다문화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가 부족하다.

미술은 문화를 소통하고 상징하는 수단으로서 다른 교과보다 그 시대의 문화를 전달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미술을 통해서 문화의 다양성과 상대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갖도록 하여 특정 문화에 대한 고정된 시각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문화의 고유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다문화 미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다문화 미술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에 대해 이해하기에 앞서,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문화 예술 운동인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개념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적 정의와 발생 배경 그리고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 알고, 포스트모더니즘 사상과 함께 했던 미술 장르 중 대표적인 팝 아

트(Pop Art), 페미니즘 미술(Feminism Art), 신 표현주의(Neo-Expressionism)의 표현 방법과 작가들에 대해 살펴보고 포스트모더니즘의 교육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둘째, 국내외 문헌 자료를 통해서 본 연구내용의 바탕이 되는 다문화주의 교육의 개념에 대해 짚어보고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의 개념과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연구 내용의 핵심으로, 다문화 미술교육의 필요성을 알고, 앞으로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수업 지도안과 수업 계획의 구안을 통해 실제적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학생들에게 흥미를 일으키며 단순히 미술작품 제작에 그치는 수업이 아닌,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활동함으로써 다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모든 수업과정에서는 시각 매체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에 대한 수업 대상은 고등학교 학생들로 지정하였다.

II. 다문화주의 이론적 배경

1. 포스트모더니즘

1)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

포스트모더니즘은 지난 20여 세기 동안 서구의 문화와 예술, 삶과 사고를 지배해 온 모더니즘에 대한 반동으로써 이른바 ‘탈현대’ 정신 및 현상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말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에서 새 시대에 대한 낙관적 의미로 사용되다가 건축 분야에서 이론적 정립이 되면서 국제적 용어가 되었으며 사회 과학 이론에 수용된 것은 1970년대 말과 1980년대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가변적인 개념으로 정의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더니즘, 후기 구조주의, 후기 자본주의 등과 구분 없이 쓰여 진다.¹⁾ 포스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모더니즘과의 관련성을 통하여 살펴보면, 모더니즘의 절대성, 합리성, 진리성을 비판하고, 해체와 불확정성, 상대성, 다양성, 탈 정당성을 표방한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단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더니즘적 관점의 기초적인 이론들과 실제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모더니즘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그것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원성과 상대성 그리고 비결절성을 포함하며 어느 특정 개념으로서의 정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포스트모더니즘의 패러다임 속에 살고 있으며, 포스트모더니즘은 현대인의 삶과 문화의 얼굴로서 친근한 용어이지만, 그 개념을 확실히 파악하고 정의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

1) 윤은주. 포스트모더니즘의 일리성과 교육,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5

넘은 학자들 마다 그 의견이 구구하여 명확한 정의가 결여되어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며 의문에 싸여있다’는 클리브 딜노트(Clive Dilot)의 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란 활자는 1960년 다니엘 벨(Daniel Bell)의 <이념의 종말>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 그 말이 비평가들 사이에서 통용되기 시작하며 미술에서도 전개되었다. 데이비드 안틴(David Antin)은 “당신이 모더니즘을 정의한 바에 의하면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의 포스트모더니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고, 어빙 샌들러는(Irving Sandler) 이것이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명확한 정의라고 표현했다.²⁾ 포스트모더니즘은 여러 장르에 걸쳐 결합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성격과 특성을 규정지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개념의 어원과 유래를 살펴봄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접근을 해보았다.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용어는 포스트(Post)와 모더니즘(Modernism)이라는 용어가 결합된 것으로 어떤 단어 앞에 붙어서 ‘이후’, ‘벗어난’ 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사실상 자신을 존재하게 했던 이전의 논리에 의존함과 동시에 독립한다는 모순적인 입장을 가리키며, 후기 현대사회와 긴밀한 관계성을 맺는다. 따라서 포스트에는 탈문명, 탈형식, 탈산업사회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모더니즘에 대한 반작용처럼 해석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가 대중 속으로 처음 들어온 때는 1979년 필립 존슨(Philip Johnson)의 건축물인 뉴욕 AT&T를 통해서이다. 국제 양식으로 잘 알려진 그는 극히 간소한 현대 건축의 창안자로서, 미국 전신전화회사(AT&T)를 위해 건축한 고층 건물의 마천루에 치펜데일(Chippendale)³⁾ 양식의 지붕을 사용함으로써 바로크 스타일로 장식하였다. 존슨의 치펜데일 지붕 양식은 권위주의적이고 고립적으로 세워진 건축 형태에 안락하고 가정적인 모습의 지붕을

2) 이용우 외 30인. 현대 미술 세기의 전환. 시각문화. 1993. p.11

3) 치펜데일 (Chippendale) : 18세기에 유행한 우아한 곡선을 사용한 가구용 장식

장식하여 모순적인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미술계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은 1960년대에 팝아트, 개념미술, 행위미술 등의 유행과 함께 부상했고, 1980년대가 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은 후기 구조주의와 결합을 이루며 신 표현주의, 페미니즘, 다문화주의, 대지미술 등 점차 포스트모더니즘 자체의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기의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인 제 1차 세계대전과 제 2차 세계대전을 모두 경험하면서 전쟁과 인류 종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을 모더니즘의 결과라고 여기며 절대성, 보수성 그리고 일원론적이며 독단적인 사고를 지양하면서 점차 상대성이론과 다원론, 자율성, 관용주의를 지향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성 중심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모든 생활양식과 모든 신념 그리고 행동들이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은 20세기 후반을 지칭하는 가장 핵심적인 용어로서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한 문화와 예술의 해체주의적 현상을 가리키는 문예적 개념으로, 미술 분야에 있어서도 모더니즘 형식의 미학에 반기를 들고 출현하였으며, 20세기 후반의 주류를 이루는 미술 사조를 포스트모더니즘 회화미술이라고 한다.

2)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포스트모더니즘의 흐름은 후기 산업화와 정보화를 맞이하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실증주의와 인간주의를 비판하던 이들은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과 세계관을 구축하며 그에 맞는 인식 전환을 요구했다. 또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보호에 힘쓰며, 기존의 남성 중

심, 서구중심, 기성세대 중심의 문화 대신 소외되었던 여성, 청소년 중심의 문화를 수용하였다.⁴⁾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특징을 대표적 이론가인 이합 핫산(Ihab Hassan)과 김옥동의 의견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합 핫산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여덟 가지로 제시하였다.⁵⁾

첫째는 불확정성(Indeterminacy)으로 여기에는 개방성과 해체, 무작위성, 임의성, 다원성, 모호성, 불연속성, 이단의 정신 등과 같은 확정적이지 않은 이론들을 포괄한다. 서구의 전통적인 형이상학 체계인 진리, 주체, 초월적 이성 등의 특정한 체계를 벗어나, 규범과 경전에 대한 도전은 엘리트주의, 남성우선주의를 부인할 뿐 아니라 대중의 참여와 비평을 유도하며, 대중문화, 여성문화, 민중미술, 제3세계의 예술, 소수민족 예술, 노동자 예술, 이방인의 문화에 대한 관심 등의 대중 예술이 주류를 이룬다.

둘째는 단편화(Fragmentation)로 질서나 통합을 위한 종합의 부분으로서의 단편화가 아닌 주체적인 단편의 성질 그 자체를 보인다. 사회적, 인식론적 종합을 거부하고 총체성을 거부하며 차이와 변증을 따른다. 미술에서는 몽타주, 콜라주, 혼성 모방 등의 기법이 있으며 은유와 환유가 중요시 되고 역설과 배리, 병렬과 결합이 자주 등장한다.

셋째는 탈경전화(Decanonization)이다. 이것은 서구의 전통적인 규범이나 경전에 대한 도전으로 기존의 형이상학적 진리와 이성을 거부하고 엘리트주의, 남성주의를 반대하였으며, 제 3세계 문학과 소수 민족문학, 대중 문학, 노동자 문학, 여성 문학 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대중의 참여와 비평을 유도했다.

넷째는 재현불가능성(Unrepresentability)으로 반리얼리즘 또는 초현실주의의

4) 사와 타카미즈, 홍성태 역. 자본주의 재정의 : 자본주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푸른숲. 1996. p.151

5) 이합 핫산(Ihab Hassan). 정경호, 이소영 역. 포스트모더니즘 개론-현대문화와 문학이론. 한신문화사. 1991. pp.433-443

모습으로 나타난다. 많은 작가들이 모방을 거부하고 예술의 한계를 추구하며 소모를 즐기고 침묵 속에 존재하면서 예술고유의 재현(Representation)양식을 드러낸다. 즉, 현대 기술 문화의 무형태성, 공해, 절대 등 본질적으로 재현할 수 없는 것들의 재현을 통해서 새로운 재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섯째는 혼성모방(Hybridization)인데, 이것은 앞서 말한 한계의 극복으로 장르가 붕괴되고 혼합되는 성격을 뜻한다. 다양하고 비논리적인 상황을 풍자적 조롱이나 희화화 된 모방을 통해 표현하는 것으로 허구와 사실의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은 전통에 대한 다른 개념을 보완하고, 지속과 단절, 고급문화와 저급문화가 혼합되며 현재 속에서 과거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확장시키게 된다. 다원적인 현재 속에서 모든 형식들은 현재와 현재가 아닌 것, 같은 것과 다른 것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증법적으로 작용하여 현재와 과거의 동시성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공간 상호성 즉 병렬적, 수평적, 평등적 공간의 확산을 통한 공동체 의식도 얻게 된다.

여섯째는 대중주의(Populism)로 모더니즘의 고급문화에 대한 적대감이 역력히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대중문화에 관심을 보이고 의식변화를 촉구한다. 미술에서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의 레디메이드(ready-made) 이론은 예술의 기존 관념을 깬 것으로 이미 만들어진 대상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창조하였고 앤디워홀은 스프강통, 브릴로 상자, 슈퍼맨 만화 등 대중적인 사물을 이용하여 혼성 모방 기법을 연출하였다.

일곱째 특징, 대중의 직접적인 행위(Performance)와 참여(Participation)는 예술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것이다. 예술은 행위를 통하여 시간, 공간, 또는 사람들에 의해 변화되고 완성되며, 많은 예술가들은 엄격한 통제와 인간관계의 틀을 버릴 때의 우연적 작용과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여덟째 특징은 보편 내재성(Immanence)이다. 보편 재재성의 경향은 율동, 상

호작용, 의사소통, 상호의존 등을 통해서 드러나며 이렇게 나타난 개념들 속에서 가치관의 세계화, 보편화 경향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은 상징을 통해 인간의 정신자체를 일반화하려는 활동으로서, 인간은 새로운 통신수단과 전자매체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통해 의식과 정신의 끊임없는 확장을 경험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러한 특징은 작품의 의도를 바꾸고 작품 속의 내용과 작품 외적인 요소에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 김옥동은 이러한 현상들의 특징을 일곱 가지로 정리하였다.⁶⁾

첫째로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일관된 자아의 중요성이나 총체성의 문제를 드러내기보다 자아의 분산, 상실의 문제를 대두시킨다. 자아는 해체되고 주체는 탈중심화되면서 모호하고 파편화된 서술구조는 애매한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해석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런 전개양식은 기존의 예술적 장르를 붕괴시키고 탈장르화와 장르적 확산으로 이어진다.

둘째로 모더니즘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던 패러디나 패스티쉬(pastiche)⁷⁾를 매우 핵심적이고 예술적인 장치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모더니즘 보다 명시적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일부러 패러디와 패스티쉬 기법을 부각시키고 표절에 가까울 정도로 이미지를 빌려오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 성격을 지닌 모더니즘과 달리 긍정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의미로 활용한다.

셋째로 포스트모더니즘은 임의성과 우연성 그리고 유희성을 지닌다. 이것은 모더니즘이 추가해 온 질서나 조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일반성이나

6)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문학과 지성. 1990. p.433-459

7) 패러디란 한 작가의 스타일이나 습관을 흉내 내어 원작을 우습게 개작했거나 변형시킨 작품을 가리킨다. 패러디는 기존의 개념이나 형식과 같은 꼴을 취하면서도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는 문학적 기법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패러디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금까지 세워진 진리가 허구임을 보여주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패스티쉬는 포스트모던한 사회를 반영하는 예술 행위 양식의 한 특징인 혼성모방을 지칭한다. 패스티쉬는 비판의식이 상실된 유희적 모방이라고 할 수 있다.

보편성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모더니즘의 일방적이고 고립된 형식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참여와 관심 그리고 실천적 행동으로 바뀌면서 외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제 3자였던 관객이 작품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창조적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넷째로 전통적인 계급적 질서의 붕괴와 새로운 계급의 출현이다. 주변적인 것으로 무시되거나 도외시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로운 의미를 부여 받으며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이 된다. 소수민족의 부상, 청년문화의 대우, 성의 해방에서 비롯되는 페미니즘 운동이나 문학 이론 등은 모두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탈장르화와 장르의 확산이다. 문학이나 예술적 장르가 붕괴되고 각각의 장르가 혼합되고 결합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자기 반영성으로, 리얼리즘이 외부 현실의 반영에 중심을 두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자기 반영에 관심을 둔다.

일곱째는 의미와 해석에 대한 관심이다. 모더니즘과 관련되어 발전한 형식주의나 신비평의 경우 의미나 해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은 서술구조의 해체, 과편화와 단편화, 탈 장르화, 혼성모방과 패러디 기법, 불확정성과 모호성, 탈 중심화, 현실과 허구의 혼합, 관객의 참여 등의 특징을 가진다.

3) 포스트모더니즘 미술

미술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앞서 언급한 개념과 맥락이 같다. 1960년대를 전후로 포스트모더니즘은 미술 분야에 등장하였다. 정보기술의 혁신과 대중매체의 확산으로 인한 국가 간의 경계가 소멸되면서 매체 산업이 발전하고 환경

보호 운동이 일어나는 등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전자문명에 부합하는 신호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정보산업의 확산은 전 세계 예술인들을 한 테두리 안에 묶음으로써 모더니즘의 지속적인 존립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부추겼다. 또 다른 등장배경으로는 생활공간의 심미적 특질을 도외시한 기능주의 건축의 실패와 사회적으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아방가르드 미술 이론, 변증법적 유무론을 추종하는 문화권의 증가와 공공예술에 대한 재평가 등이 있다.

찰스 젠크스(Charles Jencks)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개과정을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십년 단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⁸⁾

첫째,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까지의 포스트모더니즘이다. 이때에는 예술과 삶의 재통합을 바라면서 전통을 버리고 고급 예술의 제도화에 반대하는 아방가르드를 영감의 원천으로 삼았다. 그것은 추상표현주의와 같은 미술을 반대하는 자율적 예술이었다. 사회적, 도시적 리얼리티를 드라마화하여 그 특징을 드러내는 팝아트가 대표적으로 유행하였다. 다니엘 벨(Daniel Bell)은 6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을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혁명으로 보기보다는 허무주의적이고 무정부주의적인 색채를 띠는 모더니즘 경향의 지속으로 보았다. 또한 모더니즘에 반대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둠으로써 모더니즘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로 반 예술적 성격을 가졌다.

둘째, 1970년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은 60년대를 주름잡았던 팝아트를 비롯한 사회운동들이 몰락하거나 그 경향이 바뀌게 되면서 다원주의적 전략(Pluralistic)과 절충주의(Electic Style)의 특징을 갖는다. 이 시기 미술에서는

8) 최신영.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표현양식을 활용한 미술교육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0. pp.21-24

모방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과거에 소홀히 여겼던 환상적, 연극적, 장식적, 문화적 등의 사용이 부활하였다. 그리고 정치와 문화가 모두 개방되자 점차 다원주의의 양상을 띠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 초 시작되었던 여성해방운동은 문화예술에 있어서 남성우월주의가 은폐해왔던 엘리트 모더니즘을 공격목표로 삼았으며, 초자연적인 새로운 종류의 역사주의, 원시주의, 표현주의 등이 비합리적으로 수용되었다. 이때에는 페미니즘과 거리예술, 낙서화가 두드러졌다.

셋째, 1980년대에는 신표현주의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다원화되고 새로운 경향의 미술이 줄지어 등장하기 시작했다. 당시 영국에서 열린 새로운 경향을 제시하는 ‘회화에서의 새로운 정신’이라는 전시회가 있었고 이 전시의 작품들은 새로운 회화의 특징과 다양성을 가졌다. 미술은 관념적이거나 특정계층의 예술이 아닌 대중적이며 일상의 원초적인 성격을 지녔다. 또한 거대한 캔버스에 거친 붓 터치와 격렬한 색의 대비를 통한 이미지의 무리들은 70년대의 환원적이고 비대상적인 회화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80년대 회화의 재탄생은 독일과 이탈리아에 새로운 미술사조의 주역들을 탄생시켰다

이처럼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이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처음에는 단순히 모더니즘에 반하는 경향을 띠었으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포스트모더니즘만의 새로운 양상을 창조해나갔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미술은 작가의 개념, 원본성의 개념을 해체시켰으며 차용을 통한 이미지의 표현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것은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복제 이미지가 각광을 받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해체론이 수용되면서 미술이 언어의 형식을 빌릴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 준 개

념미술이 등장하였다. 이것은 형으로부터 개념으로의 전환, 물질에서 정신으로의 전환, 오브제에서 대상의 부재 혹은 표류를 뜻하며 장르의 와해로 이어지게 되었다. 작가가 없어진 시대의 미술은 보는 형태의 작품이 아닌 읽는 텍스트가 되면서, 작가는 미술 오브제의 제작자가 아닌 기호의 조작자가 되었고, 관객은 수동적인 관조자에서 능동적인 독해자로 바뀌었다. 작품 본래의 의미는 중요한 것이 아닌, 작가의 의도 혹은 관객이 해석하는 방식이 그 의미가 되었다. 다원주의를 지향한 포스트모더니즘은 그 동안 은폐되거나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영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백인 남성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며 계급과 인종 그리고 성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페미니즘과 복합문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였다.

다음은 여러 경향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며 작품과 장르간의 구분을 파괴함으로써 일상 속에 예술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미술 사조 팝아트, 페미니즘 미술, 신 표현주의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다.

① 팝아트 (Pop Art)

미국의 팝아트는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시작으로 이야기된다. 1960년대 이후 서구 사회의 문화에서는 다양한 시각 이미지가 범람하면서 TV, 영화, 만화, Pop Music 등의 대중적인 양식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따라서 젊음과 대중성을 지향하기 시작한 사회문화는 급속한 산업의 발전과 대중적 소비문화의 파급으로 그 당시까지 고수된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의 두꺼운 벽을 허물었

다. 1950년대를 풍미한 추상표현주의는 ‘사회’보다는 작가의 ‘내면’에 치우쳤던 반면, 팝아트는 일상이라는 익숙함으로 현대미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고도로 세련된 기술에 의해 삶의 표면을 미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대중 사회의 문화를 미술 영역 속으로 수용한 팝아트는 새로운 미술로 등장하게 되었다.

팝아트라는 용어는 Popular의 약자로 영국의 미술평론가 로렌스 알로웨이(Lawrence Alloway)에 의해 1954년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로렌스 알로웨이가 사용한 팝아트 또는 팝 컬처(Pop Culture)라는 어휘는 회화와 조각의 서술적인 표현양식에 대하여 언급한 데서 출발하여, 일반적으로 대중문화를 소재로 한 미술작품을 가리키는 지금의 팝아트라는 용어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집단광고문화(Admass-culture)에 기인한 ‘대중예술(Popular Art)’을 지칭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이 말을 쓰기 시작했고, 1950년대 초에는 런던의 소그룹 예술가들 사이에서까지 사용되며 대중적 이미지를 구사하는 순수 미술가들의 활동을 논하는 데에 까지 확대 사용하게 되었다.⁹⁾

팝아트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는데, 그 첫 번째로 재료와 소재를 일상적 사물에서 찾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차용’으로 팝아트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작품의 재료에 있어서 대중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사물들을 작품 속에 적극 수용하고, 제작기법에 있어서도 대량복제 방식, 사진술, 레디메이드 등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한다. 세 번째로 팝아트는 하나의 현실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이 현실은 대부분 인쇄에 의해 재현된 이미지일 경우가 많았고, 재현된 복제품을 통해서 현실에서 나아가 세계를 내다보려 하였다.¹⁰⁾

영국 팝 아트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인 리처드 해밀턴(Richard Hamilton)은 팝 아트는 통속적이고, 일시적이고, 소비적이고, 값싸고, 대량 생산

9) 김춘일, 팝아트와 현대인. 열화당. 1976. p.31

10) 제주희, 팝아트를 통한 일러스트레이션 표현연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p.5-6

적이며, 재치 있고, 관능적이고, 선동적이고, 활기차고, 대기업적인 미술 양식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미국의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 앤디 워홀(Andy Warhol), 클레이즈 올덴버그(Claes Oldenburg), 로버트 인디애나(Robert Indiana), 영국의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 같은 팝 미술가들은 작품에서 현대생활에 강한 충격을 주는 대중문화의 모든 현상을 가리지 않고 특징적으로 묘사했다. 그들은 긍정도 부정도 담지 않고 노골적·직접적으로, 또한 그림 자체를 있게 한 매스 미디어에서 사용된 정확한 상업적 기법을 수단으로 텔레비전이나 만화책, 영화, 잡지 및 모든 형태의 광고에서 고안된 도상학적인 형상을 뚜렷하게 객관적으로 드러냈다. 미국과 유럽에서 추상표현주의의 물결이 가라앉을 무렵, 팝 아트는 좀 더 객관적,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미술 양식으로 되돌아가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과거의 순수예술이 주장하는 우월성과 당대의 전위미술에서 볼 수 있는 허식을 모두 거부함으로써 전통을 파괴했다.

팝 아트는 특정한 사회적 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미디어에 의해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이미지들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용했다. 또한 생활에 직접 반응하는 미술, 즉 전문가와 훈련받지 않은 관람자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민주적, 비차별적인 미술로서 평가되었다.

팝아트는 지금까지도 그 위력을 더해가며 대중매체의 기술, 발전과 소비주의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조 자체를 작품화하며, 인간의 시각을 보다 넓은 세계로 확장시켜 예술과 현대 사회의 관계에 시각적인 해소를 준 대중적인 예술이라 하겠다.

② 페미니즘 미술 (Feminism Art)

페미니즘을 간단히 정의하면, 여권신장운동 또는 여성해방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성의 가치와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써 여성이 직면한 사회적 지위나 차별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극복해 나가며, 여성의 위치를 재정립하기 위하여 사회문화, 예술, 정치, 종교 등의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양성성을 주장하고 획득하기 위해 저항하는 이론이다.

페미니즘은 역사적, 철학적 접근 방법에 따라 자유주의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급진주의적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으로 나눌 수 있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법 앞에 평등함을 주장하며 여성의 권리에 대한 선택의 자유와 교육의 기회를 주장하였고,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의 종속, 여성의 성, 성역할의 정체성에 관한 유물론적 근거를 설명하고, 생산 수단과 여성의 지위 및 계급 이론들을 가족의 역할에 적용시켰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을 억압하는 대상이 여성의 출산 및 여성의 성을 통제하는 남성이라고 보고 성 역할 폐기와 양성성을 주장하였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여성 억압의 근거가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계 전반에 깔려 있으며 생산 수단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라고 보고 출산 및 육아를 담당하는 가부장적 가정 내의 여성의 역할에 대해 성을 계급과 접합시킴으로서 여성의 내면화된 억압을 역사적 유물론적 관점에서 평가했다.¹¹⁾ 이처럼 페미니즘은 사회 구조적 문제의 원인을 남성이라고 생각하며 여성의 권리를 주장과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적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여성의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페미니즘 운동은 페미니즘 미술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페미니즘 미술은 1960년대 말에 미국과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의식화 되어, 1970년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활성화 되었다. 페미니즘 미술은 기존의 예술을 남성 위주의 예술로 보고

11) 박순영. 현대미술에 나타난 페미니즘 미술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p.7-8

여성의 관점에서 그것을 재해석하여 재정립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인간성이 억압하는 사회에의 거부’라는 하나의 문화 운동으로서의 가치체계와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 페미니즘 미술은 삶의 방식으로부터 출발한 혁명이었고, 단순히 여성 작가들이 만든 작품 뿐 만이 아니라 일반 여성들의 개인적인 경험까지 내포하는 포괄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1970년, 뉴욕을 거점으로 한 미술작가연맹(Art Workers' Coalition)에서 파생된 혁명적 여류 미술가(Women Artists in Revolution : WAR)가 결성되었다. 이것은 최초의 페미니스트 미술가 단체로 ‘미술작가연맹(AWC)’의 남성 위주의 구성에 반발하여 여성만의 단체로 독립한 것이다. 이 단체의 영향으로 같은 해에 많은 여성 단체가 결성 되었고, 활발한 시위 활동이 일어났으며, 페미니스트 미술 잡지와 서적의 출판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리고 그 동안 남성에 비해 크게 제한되었던 여성들만의 전시회가 활발해졌다. 그러나 페미니즘에 무관심하거나 또는 그것이 오히려 폐가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여성 미술가들도 적지 않았다.

한편, 린다 노클린(Linda Nochlin)이 1971년에 발표한 ‘왜 이제까지 위대한 여성 미술가는 존재하지 않았는가?’ 라는 아트 뉴스(Art-News)지에 실린 이 논문은 미술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페미니즘적 시각에 의한 일종의 선언문이었다. 여성 작가는 남성 작가만큼 대단하지 않더라도 미술사에서 연구될 가치가 충분히 있음을 주장하며, 1970년대 페미니즘 미술사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페미니즘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개념의 문제는 페미니즘 미술가들에 의해 재조명되고 있다. 여성 미술가들이 여성을 묘사하는 경우는 지금까지와 달리 모델이나 여주인공 그리고 숭배나 영감의 남성 미술가들과 다른 이미지로 묘사한다. 또한, 여성이 남성을 묘사하는 경우에는 강하고 용감한 표현에서 벗어나 여성의 관점에서 때로는 순진하고 약하게

때로는 에로틱하게 표현했다. 따라서 남성 위주의 시야와 해석으로 그려졌던 여성의 모습은 새로운 해석을 가미하게 되었다.¹²⁾

페미니즘 미술 작품은 매우 다양하다. 1970년대에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자전적(自傳的)인 작품과 카타르시스를 주는 의식화된 퍼포먼스 아트가 압도적 이었고, 1980년대에 들어서는 전통적인 재료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페미니스트 미술에도 영향을 미쳐서 개념 미술적 비평적 작품이 제작되었다. 이본느 라이너(Yvonne Rainier)와 영국 미술가인 빅터 버긴(Victor Burgin)을 포함한 여러 미술가들은 가부장적인 ‘남성의 시각’이 여성을 타인으로 대상화시켜 주시한다는 견해를 작품에 담았다. 최근에 널리 주목을 받고 있는 페미니즘 사진작가 신디 셔먼(Cindy Sherman)은 역할연기의 형식을 빌려 자기 자신을 탐구해 본 사진 작업을 했고, 바바라 크루거(Babare Kruger)는 광고의 시각 언어를 통해서 문화적 지배를 환기시키는 작품을 제작했다.¹³⁾

모더니즘의 순수함과 배타성과는 반대로, 미술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양화시키며 서술, 자서전, 장식, 의식, 예술로서의 공예, 대중문화 등을 이용하는 페미니즘 미술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발전에 촉매 역할을 하였다.

③ 신표현주의(Neo-Expressionism)

신표현주의는 1980년대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에서 동시에 시작된 국제적인 그룹으로, 당시 미술의 주류를 이루던 미니멀아트, 개념미술 그리고 내향적이며 지나치게 지적인 추상미술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났으며, 포스트모더니즘 회화의 절정을 알리는 양식이다.

12) 현인자. 한국 여성주의 미술과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p.9-10

13) 이상건. 포스트모더니즘과 미술교육 : 다문화 시대 미술교육의 방안 모색. 서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pp.23-34

‘신표현주의’라는 명칭은 어떤 경위로 처음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뉴욕 타임(NewYork-time)지에 실린 힐튼 카머(Hilton Karmner)의 ‘표현주의 회화에의 복귀’라는 새로운 장르의 회화에 대한 글에서 처음 사용된 것이 아닐까 추정한다.

이 새로운 회화는 이미지(Image)를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미국에서는 ‘New Image Painting’으로 불리고, 독일에서는 표현주의의 부활이라는 뜻으로 ‘Neo(New)-Expressionism’으로 불리며, 이탈리아에서는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계통의 모더니즘을 극복한다는 의미로 ‘Trans-Avanguard’라고 불린다.¹⁴⁾ 그러나 이들은 표면상 무척 다양하면서도 공통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니멀리즘의 신중함에 도전하면서 웅장한 스케일과 강렬한 색감과 거친 터치를 보이며, 형식상으로는 다양한 오브제의 사용과 콜라주와 몽타주를 도입했고 내용상으로는 종교, 신화, 죽음,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이미지에 오늘날의 사회 실존적인 감각을 복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세속과의 관계를 인위적으로 모색하려는 복고적인 의미를 나타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신표현주의의 출현은 모더니즘으로 쇠퇴하고 있는 미술 시장에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였다.

신표현주의는 기존의 독일 표현주의의 전통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곳 또한 독일이다. 처음에 서독은 모더니즘 양식을 절충한 모방 형태로 신표현주의를 이해했고, 공산 국가인 동독은 사회주의 영향으로 인해 신표현주의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민족주의와 민족의 정체성 추구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예술가들은 그 동안 자신들에게 금지되었던 이 미술을 탐구하기 시작했다.¹⁵⁾

신표현주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게오르크 바젤리츠(Georg Baselitz)를 꼽을 수

14) 김보라. 독일 신표현주의의 형상성 연구 1세대 작가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 석사학위논문. 1997. p.5

15) 로버트 앳킨스, 박진선 역. 알기 쉬운 현대미술의 개념풀이. 시공사. 1994. pp.73-75

있다. 바젤리츠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망명하여 금지된 회화에 도전하였다. 그는 호기심이 무척 많았고 이것이 그의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그는 1969년 모든 형상들을 거꾸로 돌리기 시작하면서, 거꾸로 된 이미지들에 대한 진부한 해석을 가로막고, 대상에 대한 상상력을 자유롭게 했다. 그의 작품은 순수한 시각성과 추상성을 맞닥뜨리며 요셉 보이스(Joseph Beuys)와 함께 새로운 회화의 전성기를 이끌게 되었다.

그 밖에 신표현주의 독일 작가에는 분단된 독일의 현실과 물질만능주의를 풍자한 요셉 보이스의 제자인 외르크 이멘도르프(Jorg Immendorff), 섬세하면서 역사적 내용을 다룬 볼프강 페트릭(Wolfgang Petrick), 역사와 현재의 윤리적 문제에 참여한다는 예술의 임무를 확고히 천명하고 있는 안젤름 키퍼(Anselm Kiefer)등이 있다. 이탈리아 작가에는 산드로 키아(Sandro Chia), 프란체스코 클레멘테(Francesco Clemente) 등이 있으며, 미국 대표작가에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회화의 한계에 도전하고, 고전과 신화, 역사적 이미지를 절충하며 개인적이면서 암시성이 풍부한 작품을 창조한 줄리안 슈나벨(Julian Schnabel)이 있다. 그의 작품은 웅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실험성과 대담함으로 1980년대 '회화의 부활'을 이끌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영화감독으로써 지금까지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4) 포스트모더니즘의 미술교육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을 알기에 앞서, 그 기초가 되었던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미술교육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다.

20세기 후반부터 오늘 날까지의 미술계를 지배하는 포스트모더니즘 미술 교육은 다원주의를 표방하며, 서로 다른 지역 및 집단의 특색과 가치를 존중하고 민속 미술과 대중미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또한 작품이 만들어진 문화 안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감상자는 작품에서 서로 다른 의미와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인정한다.

포스트모더니즘 미술교육은 시각문화에 기초하여, 시각문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시대의 폭넓은 문화 현상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비판하는 사고력을 기르게 한다. 시각 문화에 기초한 미술교육은 학습자의 문화적 경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광범위한 시각 문화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 시각문화를 창조하고 그것에 대한 비판하는 능력을 갖게 한다.¹⁶⁾

포스트모던 교육의 중심적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일리성인데, 이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문화만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가치관도 합리적이라는 생각으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하며 타인을 이해하려는 관용적인 태도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지식관이다. 즉 합리적 이성에 바탕을 두며 부분적 진리의 차이와 다양성의 속성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일리성에는 대화가 요구되며, 대화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 나가며 그 과정 속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차이를 넘어선 부분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일리성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필요조건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서 육성되고 그 결과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는 태도의 개념이다.

16) 이순주. 초등미술에서 포스트모더니즘 감상교육에 관한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p.20-21

현재 존재하는 다수의 사회적 관계와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포스트모더니즘 교육은 학생들의 다차원적인 배경과 개성을 존중하고 무엇보다 교육내용을 다양화하여 학생들이 교육 내용을 스스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⁷⁾

2. 포스트모더니즘과 다문화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은 20세기 이전부터 그 조짐이 발견되었지만 본격적으로 대두된 시기는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이며 지금까지도 이어오는 일종의 시대정신이다. 그리고 문학과 예술, 철학과 사회, 자연과학 이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된 문예전통이나 예술 사조의 범위를 훨씬 더 뛰어넘는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어느 문화든지 그 나름대로 유일하며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문화상대주의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불확정성, 탈경전화, 자아의 상실, 아이러니, 보편내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탈장르성, 다원성, 상대성을 매우 중시하고 대중문화와 대중적인 장르들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것들을 존중한다.

그렇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이 다문화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윤종건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교육행정과 학교 경영>을 통해서 살펴보았다.¹⁸⁾

첫째로 포스트모더니즘은 오직 하나의 양식만이 존재한다는 모더니즘적인 사고방식을 거부하면서 다원성을 받아들였다. 민족 중심 또는 국가중심주의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타난 다문화주의는 하나의 국가 내지 사회 속에서 복수의

17) 편미라. 포스트모더니즘 교육관 탐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p.55-57

18) 민원. 다문화미술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p.18-20

다른 인종과 민족과 계층 등이 존재할 때 서로 다른 문화의 공존을 인정하고 그들 각자의 독자성을 육성하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원성, 다문화와 사회적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둘째, 다문화주의란 백인중심이었던 유럽 문화적 전통만을 우월하게 생각했던 종전의 태도로부터 다양한 민족과 그 나라, 그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인정하고 교류하며 여러 문화를 존중하자는 것을 뜻한다. 여성문화, 소수파문화, 비서양문화 등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의 주변 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여, 현대 세계사회에서 여러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용을 증시한다.

셋째,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정의와 평가는 처한 입장에 따라 다양하지만 사회, 경제적 발생배경과 관련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은 탈구조주의적이고 탈산업 사회적 논리의 영향을 지녔다. 재현이데올로기의 약화와 이미지의 해체, 비판거리의 소멸, 대중매체의 수용, 미학적 대중주의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바 다문화주의가 지향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넷째, 국제화의 지구촌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세계는 빠르게 급변하면서 각 국가, 인종, 지역 간의 격차는 좁아지고 차별은 점차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각 나라가 갖는 고유한 특성 역시 점진적으로 소멸되거나 다른 문화에 흡수되어 바뀌거나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바로 다문화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해석학자 폴 리쾨르(Paul Ricoeur)는 <문명과 민족 문화들>에서 문화들의 다원성을 발견하는 것은 이제 해롭지 않은 경험이며 문화 독점의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오직 하나의 문화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여러 개의 다문화가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¹⁹⁾

19) 김동욱.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현암사. 1995. p.23

이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은 다문화주의와 큰 연관을 가지며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다원론적 입장에서 전통적인 규범에 대한 저항과 엄격한 합리주의, 지배의 틀을 거부하며 삶과 문화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이것은 다원주의가 문화상대주의를 지지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사회적, 문화적으로 검토하면서, 문화라는 화술이 포스트모던 방향과의 동질성에서 차이성으로, 불변의 것에서 변화적인 다양성으로 이어지는데 교량 역할도 한 것이다.²⁰⁾

20) 남영희.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관련된 다문화미술교육. 미술교육. 제9호. 1999. p.207

Ⅲ. 다문화주의 교육

지금까지는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배경이 되고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의 철학적 배경이 되며 오늘날 국제화와 다원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뿐 아니라 미술교육에도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의 성격을 잘 이해하기 위해 먼저 다문화주의 교육에 대한 개념들을 살펴보고,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1. 다문화주의 교육의 개념

1) 역사적 관점에서의 다문화주의 교육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역사적 관점에 근거한 개념 4가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는 배척주의(nativism)이다. 배척주의는 기존의 지배층이 새로운 이민자를 배척하는 경향을 띤다. 미국의 경우, 영국의 청교도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민자와의 갈등구조에서 청교도 문화를 유지하려는 구이민자와 신이민자 간에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 때문에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을 갖고 있는 집단 간의 갈등이 특히 심화되었으며 학교는 다양한 민족 집단과 종교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지배문화에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둘째는 동화주의(assimilation)이다. 동화주의는 소수집단이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주류문화에 합병되는 것을 의미한다. 동화주의는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 간주하며, 소수집단이 지배집단과 동등한 지위로서 사회활동을 하거나, 주류문화에 통합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는 소수집단 아동에게 새로운 인생에 필요한 태도, 행동, 언어를 가르치고, 하위집단의 성원으로 사회화하여 지배집단에 포함되도록 교육하게 되었다.

셋째는 용광로주의(melting pot)이다. 용광로주의는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가 증가와 인종 편견적 동화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의 문화를 용광로에 용해시켜 특정문화를 배제한 새로운 형태의 종합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자민족 중심주의 사회통합 정책과 같다. 마요 스미스(Mayo-Smith)는 용광로주의에 대하여 어느 국가도 그들의 동질 문화 없이 강국이 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문화의 물리적 결합보다 화학적 결합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다면 용광로주의의 학교는 모든 문화를 상대적 입장에서 보는 관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서열을 토대로 우위에 있는 문화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넷째는 마지막으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이다. 다문화주의는 다양성과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문화적 편견을 해소하여 사회평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적 상대성과 다원성, 그리고 다양성을 기초로 한다.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는 차별을 극복하고, 모든 문화를 동등한 입장에서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다문화주의 교육은 일련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문화에 대한 편견해소와 상호 간 문화의 존중과 관용을 통해서 문화적 차이에서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는 것이다. 벅크스(Banks)는 다문화주의 교육을 민주주의 다원적 사회에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교육이라고 정

의하고 있으며, 현재 다문화주의 교육은 지구적 담론이 될 정도로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는 교육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 통합 정책 역시 다원주의를 조금씩 형성해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다문화주의 교육에서는 단일문화, 민족,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중심주의와 동화주의 국가통합정책을 지양하고 주류집단과 다양한 소수집단의 정체성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사회통합정책을 지향해야 한다.²¹⁾

2) 다문화주의 교육의 개념

다문화주의 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의 바탕이 되는 개념들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12가지의 개념들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²²⁾

첫째는 다문화주의의 가장 근본이 되는 문화(culture)이다.

문화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념을 정의하기 무척 어렵다. 어원적으로는 동 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농경생활과 관련되어 있으며, 'culture'의 어원인 라틴어의 'colere'는 '다듬다' 특히 '땅을 다듬다'라는 뜻을 내포한다. 이러한 의미를 사람에게 적용하면 '개화된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의 의미를 갖게 된다.

문화인류학적인 측면에서는 문화를 이렇게 정의한다. 문화는 인간 집단의 정

21) 박성혁,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 추진현황과제 및 성과분석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과제보고서,

2007. p15

22) 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에서 발췌한 수업 자료

체성을 형성하는 방식이나 요인, 결과 등을 포함하고 ‘인간의 행동양식은 나름의 의미작용(신과의 일체감, 집단의 결속, 인격승배, 기원 등)을 거치면서, 동시에 문화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즉, 문화는 생활의 모든 수단이면서 또한 모든 생활을 포괄하는 것으로 사람과 민족의 삶의 표현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각 민족의 삶의 표현을 문화라고 한다면 삶의 조건이 문명과 과학의 발전과 함께 계속 변화하므로 문화라는 개념은 역동적인 관점에서 정의될 수도 있다.

둘째는 문화적 상대주의(culture relativism)이다.

타문화의 이해에 있어서 문화적 상대주의는 자민족 중심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자민족 중심주의가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 것이라면, 문화 상대주의란 문화는 다양하고 문화적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각각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다른 문화의 잣대로 잴 수 없다는 것이다. 문화상대주의적 태도는 한 문화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 문화의 내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지만, 다른 문화의 모든 면에 대한 판단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문화적 상대주의는 우리가 타문화를 학습할 때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할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셋째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e)이다.

웹스터는 다문화주의란 단절된 문화들을 연결시키고 반영하고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문화라는 용어는 1981년까지는 사전에 나와 있지 않았는데 그것은 다문화라는 용어가 사회적인 변화와 관련되어 만들어진 용어라는 것을 시사한다. 다문화는 다양한 문화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가운데 하위문화 간에, 또는 주 문화와 하위문화 간에 생기는 충돌이 가시화되면서 문화 간에 생기는 여러 유형의 문제를 조화롭게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용어이다.

넷째는 다원주의(pluralism)이다.

다원주의는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궁극적인 존재, 원리, 개념, 방법 등을 사고하는 입장과 경향의 총칭으로서, 유일한 절대의 궁극적인 것을 사고하는 일원론에 반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와 정치사상에서 종교단체, 노동조합, 전문 직업조직, 소수민족 등 한 사회 안의 서로 다른 집단들이 자율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유익하다는 개념이다.

다섯째는 세계화(globalization)이다.

세계화는 사람의 의식이나 행동이 한 나라의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를 무대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화는 두 나라 이상이면 성립되지만, 세계화는 세계를 무대로 하는 개념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세계화는 지구촌을 하나의 포괄적인 지역 개념으로 보고, 한 국가와 사회의 행동반경을 이들 전 지역으로 넓히면서 시스템과 활동 범위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교통, 통신 등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마을처럼 가까워지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문화적 제도에 대한 지리학적 구속력이 약해지고, 그러한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사회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섯째는 다문화주의 교육(multiculture education)이다.

베넷(Bennett)은 다문화주의 교육이란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 혹은 하나의 독립된 세계 속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민주적인 가치와 신념에 기초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다문화주의 교육은 192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민족이나 인종, 다양한 문화적 특징으로 인하여 교육적 불평등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출발하게 되었으며, 1960년대 이후에는 사회적으로 전개된 인권운동, 여성운동 등의 영향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회복을 위해 저개발 국가의 이민을 받아들여지면서 이민 가정 자녀들이 사회와 학교에서 겪는 학업성취, 편견과 차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다

문화주의 교육은 초기에는 문화적 동화주의(cultural assimilation) 혹은 용광로주의(melting pot) 정책이 주도하였지만 이후 다문화 교육의 목표는 공존하는 문화집단이 상호 존중하고 평등한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고 사회 전체 속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의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일곱째는 다민족교육(multiethnic education)이다.

다민족교육은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 1960년대 소수 민족의 권리와 가치를 존중하며 이러한 정신을 공교육에 반영하기 위해서 법(The Civil Rights of 1964)을 제정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서, 소수 민족의 가치와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주기 위한 교육적 접근 방법으로 다양한 종족이나 민족 등의 고유한 문화, 또는 특성에 대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을 배우는 민족적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이라고 정의한다. 다문화주의 교육을 하기 전에 실시되었던 것으로 현재는 다문화주의 교육보다는 작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여덟째는 반편견 교육(anti-bias education)이다.

반편견 교육은 성, 인종, 민족, 장애, 사회계층 등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선입견 등에 도전하여 이러한 편견 없이 각각의 인간을 존중할 수 있는 개방성과 감수성을 높여주는 교육이다. 이미 사회 속에 존재하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나게 함으로써 민주사회 속에서 공정하고 개방적인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차별적 행동이 다른 사람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알게 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 과정에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방향 지어지는 교육을 의미한다.

편견이란 적절한 지식, 사고, 이성 등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태도나 의견 혹은 감정 등으로 충분한 근거도 없고, 잘못

되고 불완전한 정보에서 나온 일반화에 근거를 두고 어떠한 집단이나 사람에 대하여 갖는 인식이나 태도를 갖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편견의 문제를 교육현장에 끌어내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 반편견 교육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반편견 교육은 하나의 새로운 교수이론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에 입각하여 불공평한 생각이나 행동을 수용하지 않으며, 편견에 대한 문제점을 덮기 보다는 문제점에 직면할 것을 요구하는 교육적 노력을 총칭하는 것이다.

램지(Ramsey)는 반편견 교육이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평등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스파크 포스(Sparks Force)는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 발달과 사회적 편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정의했다. 반편견 교육은 성, 인종, 민족, 능력, 장애 유무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도록 교육함으로써 특정 성이나 인종,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아홉째는 국제교육(internation education)이다.

국제 교육은 자기민족주의(ethnocontrism)를 극복하고 보다 넓은 시야에서 세계를 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로 국가 간의 경계를 유지한 채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와 이해에 초점을 두는 교육을 의미한다.

열번째는 평화교육(peace education)이다.

평화교육이란 전쟁과 폭력에 의해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는 상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갈등과 폭력에 대한 건설적 대안으로서 평화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태도와 행동, 사고방식, 가치관을 길러주는 교육을 의미한다. 여기에 자기 이해와 자존심, 의사소통, 갈등해결능력, 비폭력의 실행, 다양성의 탐구 등이 포함된다.

열한번째는 세계교육(global education)이다.

세계교육은 세계를 하나의 전체 체제로 인식하고 상호의존적 세계에서 효과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 태도를 기르는 교육으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증가하는 국가 간 상호의존성의 특징과 유한한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구에서 효율적으로 생활하기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다.

열두번째는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다.

차경수는 세계시민교육을 전 세계의 생활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인류 전체의 번영을 위하여 개인과 사회의 주어진 역할을 창조적으로 수행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지도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고, 강동연은 세계를 하나의 전체적인 사회체제로 보고, 그 속에 존재하는 국가, 인류가 상호의존하고 있다는 의식을 통해 인권, 자유와 같은 보편적 가치의 함양과 국경을 초월하는 인류 전체의 사회적 문제를 알고 해결하려는 능력과 태도, 가치를 육성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정의한다. 즉, 세계시민교육은 공동운명체와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는 이 시대에 세계시민으로서 인간 존엄성에 기초하여 세계 평화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 지식, 기술, 가치의식을 육성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의 문화적인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권리에 불평등을 없애고 통합하려는 정책으로서 캐나다나 호주 등에서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주의 교육과정에서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차별을 해결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다문화주의 교육은 나이, 신체적 능력이나 경제적 지위, 성에 관한 이슈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문화적인 차이점

과 공통점들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었으며, 다문화주의 교육 운동은 학교와 교육 관습들을 재구조화해서 모든 인종, 성 그리고 사회문화 그룹의 학생들이 동등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고안된 개혁운동이다. 이것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시민권 운동의 직접적인 산물로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소수 민족 학자들의 민족 연구와 194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지지를 받았다. 다문화주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문화와 대중매체의 역동성에 대한 통찰을 갖게 하고 개인과 사회문화의 가치와 신념, 행동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게 한다. 그리고 다문화주의 교육은 자민족 중심주의와 불평등, 성차별과 인종차별, 고정관념과 불평등의 주제를 주로 다룬다. 학생들은 주로 통합적 학습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역사와 사건들을 알고 그것들에 조금 더 친숙해지는 기회가 된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관점으로 그것들을 보고 개념을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도 모르게 사회 문화적 보호막에 쌓이게 된다.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의 가치 세계, 일반적인 견해, 고정관념 들을 내면화 시킨다. 소수 문화의 학생들은 학교에 들어갈 때 다른 문화를 접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문화를 살피며 의문을 가진다. 하지만 주류 문화의 학생들은 그들의 문화와 가치나 관점들에 의문을 갖거나 도전을 받을 기회가 적다. 그 이유는 학교의 문화가 그들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배운 것들을 아무런 비판 없이 대체로 긍정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경험 기회가 적고, 다른 문화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살아갈 능력을 갖추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주류 문화의 학생들에게도 다문화주의 교육은 필요하다.²³⁾

다문화주의 교육은 반드시 소수 문화의 학생들만을 위한 특정 프로그램으로

23) 김미영. 초등학교 다문화 미술교육의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6

만 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 모든 학생들이 다문화주의 사회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회에서 기회를 얻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식과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모든 학생들의 민족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언어, 문화적 배경에 대해 서로 편견 없이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며,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인간이 되도록 도우며 점차 다원적으로 변하는 사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결국 다문화주의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백인 위주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여성과 소수 문화의 사람들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그들을 새로운 문화로 수용하여 정착시킴과 동시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다.

2. 다문화주의 교육의 현황

1) 다문화주의 교육의 실태

다문화가 시작되고 다문화주의 가정이 생겨나면서 최근 우리사회는 가파르게 증가한 다문화주의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다문화주의 가정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국적과 인종과 문화를 가진 남녀가 이룬 가정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결혼 가정(한국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외국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외국인 근로자 가정(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해 태어난 아이,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한 가정의 아이), 새터민 가정(북한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입국한 아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주의 가정은 16만 가구에 달하며, 이들의 자녀수는 5만 8천명에 이르며 이

미 다문화, 다인종 사회가 도래한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다문화주의 가정을 “우리과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으로 정의하고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다문화주의 가정 자녀 교육 정책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동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다문화주의 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 귀화하여 어머니의 성을 바꾸는 가정이나 피부색이 비슷한 조선족의 가정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사회가 바뀔에 따라 그 아이들이 점차 드러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많이 진학하며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여성부, 노동부,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다문화주의 교육에 관한 각종 정책과 행사를 펼치지만 진정 그 아이들을 위해 실행되기 보다는 그저 홍보성, 성과 위주의 행사에 치우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은 다문화주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것보다는 학교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국어 활용능력 신장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나타나는 학교생활과 학습의 어려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버스는 어떻게 타고, 교통카드를 어떻게 발급받아 사용하고 ATM은 어떻게 사용하는 지 등에 대한 가르침이 더 절실하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조영달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직에서 다문화주의 가정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 안산 원일초등학교 손 소 원 선생님께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우리사회의 다문화주의 교육의 실태는 어떠한지 정리해보았다.

다문화주의 가정의 경우, 농어촌과 도시의 저소득층 국제결혼의 자녀들의 교

육에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 국제결혼을 한 고소득층, 전문직에 종사하는 도시지역에 사는 다문화주의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이 없지만, 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층 자녀와 외국인 어머니를 둔 다문화주의 가정의 아이들은 학교생활과 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아버지와 가정에서 일을 하시는 어머니들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그 문제가 두드러진다.

다문화주의 가정의 아이들은 유아기에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외국인 어머니를 둔 경우에는 어머니가 한국말에 서투르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별도의 체계적인 한글 배움의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점차 떨어지는 언어 능력은 학교에서의 학습 부진을 야기한다. 그리고 독해와 어휘력, 쓰기, 작문 능력이 현저히 뒤쳐진다. 부모가 한글을 모르다보니 아이들은 집에서 준비물을 챙길 때에도 어렵고, 숙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렵다. 다문화주의 가정의 아이들이 있는 학급을 맡은 선생님들은 한글이 어려운 부모님과 학생을 위해 안내장에 준비물 목록과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사진도 첨부해서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언급한다.

다문화주의 가정의 아이들 대부분은 학교에서 한국어로 대화하고 소통하지만, 가정에서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모국어로 대화하고 모국에서의 생활방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또한 모국의 명절과 기념일을 지내고 주말과 휴일에는 동일 국적이나 동일민족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경우가 잦다. 부모 중 한 쪽이 한국인인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레 한국문화와 음식, 예절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지만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이해가 서툴고 접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학교에 입학해서야 한국 문화와 학교 문화를 경험하고 배우게 된다. 전자의 경우보다 후자의 경우에 학교에서 겪는 어

려움이 더 크다.

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별도의 교육은 필요하다. 한글을 모르는 부모를 대신해 개인이 운영하는 공부방, 지역유관기관의 이주민센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센터 등과 같은 곳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학습활동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간헐적으로 다문화주의 가정의 아이들을 지도하며 적절치 못한 언행과 편견을 주기도 하고 오해와 불만이 쌓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문제를 한국어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3년이 걸리며, 그들 역시 배움과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고 잘하고 싶어 한다.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바른 인성과 사고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교사의 따뜻한 관심과 노력과 배려와 이해 그리고 지속적인 관찰과 진심어린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에도 다문화주의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수업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외국인 유입의 증가와 다문화주의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고, 다문화주의 교육에 대한 초중등교사들의 연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 학생들에게도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일반인 중에는 흑인이나 동남아시아 인을 차별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학교에서 흑인 아이가 지나가면 “저 새카만 놈은 누구냐” 또는 “이 학교에는 왜 이렇게 까똥이가 많아”라는 말들을 특 내뱉고 지나가곤 한다.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편견, 차별의식 등은 쉽게 변화되기 힘든 부분으로, 다문화주의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문화주의 가정의 아이들을 언제까지 분리해서, 우리와 다르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 다문화의 아이들이라는 말도 결국 우리와 구분을 짓는 언어임에는 틀림없다. 나라와 문화, 인종

이 다양하며 다르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인마다 그 사람만이 지닌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다문화주의 가정의 아이들은 우리와 같은 한국인으로써 한국어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며, 한국어의 부재로 인해 생기는 학습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학교 교실의 안과 밖에서 교사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 가정의 아이들과 교육에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 사회적으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문화라는 말이 사라지는, 다문화가 Standard 또는 Normal이 되는 그 때가 진정한 다문화주의 사회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2) 다문화주의 교육 프로그램 실태

조영달의 학교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학교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농촌 지역의 예로 전북 장수군에 있는 D 초등학교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곳의 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특히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여성 이민자 수 증가에 따라 다문화주의 가정의 증가가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장수군은 2007년 외국인 인구수가 225명으로 전체 인구의 0.84%를 차지하며 지역 내 인구수가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수는 증가하고 있다.

D 초등학교에서는 다양한 다문화주의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문화교육 여건 조성, 다문화주의가정 자녀 학습결손 해소, 다문화주의 가정 자녀의 학교 부적응 해소라는 세 가지 틀로 나누어있었고, 이 프로그램들

은 독립적이기 보다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효과를 동시에 나타내기도 한다.

첫째,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세 가지를 예로 들겠다. 먼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월별 1회의 신상카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여기에는 가정환경, 학년 누가 기록, 건강상태, 학교생활과 교과 학력 실태 등을 기록한다. 담임은 이 카드에 적힌 내용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학생 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생각과 마음을 포용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와 자세를 갖고 학생들을 관리해야 한다. 그 다음은 멘토링을 통한 학습 지원과 인간관계의 확장이다. 이것은 멘토의 도움을 받아 다문화주의 가정의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기초 학력을 신장시키는 목적을 갖는다. 또한 멘토링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확장될 수 있고 아이들이 좀 더 활발하고 밝고 자신감을 갖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은 신나는 한글 방에서 기초 한글 학습을 하는 것이다. 다문화주의 가정의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파악하여 단계별로 나누어 수업을 한다. 학생 수업 인원을 10명 정도로 제한하여 기초 교육에 중점을 두었고, 대체로 어려워하는 문장을 통하여 이해력과 어휘력을 기른다.

둘째, 다문화주의 가정 자녀의 학교 부적응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D 초등학교가 다문화주의 교육을 함에 있어서 학습결손과 학교 부적응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는 이유는 교육활동에서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학생이 학교에 부적응을 하는 까닭은 친구문제 혹은 선생님 문제 중의 하나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주의 가정의 학생과 또래 친구 혹은 교사와의 1:1 결연을 추진하고 서로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학교를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높인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결연을 넘어, 다문화주의 가정과 일반 가정 간의 결연 관계를 시도하여 보다 확장시키려는 계획도 있다고 한다. 이것은 지역사회 내에서 다문

화주의 가정과 일반가정 간의 소통 체계를 만들어 줌으로써 일반 가정은 다문화주의 가정을 이해하고, 다문화주의 가정의 한국 생활 적응력을 길러주기 위한 의도이다.

셋째는 다문화주의 교육의 여건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다문화 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곳은 가정이고, 영향을 가장 미치는 사람은 부모님이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가 다문화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용의 태도를 갖추어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학교는 다문화주의 이해 교육 시간을 최소 5시간으로 규정하고,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다문화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독서교육, 퀴즈대회, 세계 민속동요 부르기 대회 등을 개최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이처럼 직접 체험하고 활동을 통해 아는 것이 글로 배워서 아는 것보다 효과적이며, 다문화주의의 가정과 아이들에 대해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화합을 통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다문화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IV. 다문화주의 미술교육

1.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의 배경 및 의의

다문화주의가 처음으로 적절하게 정의된 것은 1979년이고, 미술교육에서는 1986년에 와서야 다문화주의가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는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이 새로운 문화 논리로 등장하고 사회재건주의 교육철학이 주된 경향으로 등장하게 된 시대이다. 당시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의 시발지인 미국 사회는 다양한 인종들이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였고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 나타난 교육으로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이 있다. 맥피의 주장을 근거로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²⁴⁾

첫째,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의 철학적 배경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적 다원주의 사상이다. 모더니즘 시대에 강조되었던 양식 중심의 미술사는 그 의미를 잃게 되고 지역적 전통 및 정체성을 강조하는 미술이 등장하여 언어로서의 미술의 개념은 부정된다. 또한 중심이 해체되어 주변이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여성, 유색인종 등이 미술의 소재로 등장하게 된다. 또한 맥피는 교육에서 다문화적 다양성이 적절하게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미술과목이 적절하므로 미술교육은 학습자들에게 그들 문화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다양한 계층과 민족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사회의 각 구성원들의 삶에 미술이 의미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술교육은 문화적 다원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을 미술교육의 목적과 내용에

24) 이나영. 다문화미술교육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가장행렬 활동을 통한 다문화 이해.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2008. pp.29-32

반영하고 다양한 문화를 미술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미술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미술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관점에서 문화적 다원주의를 주장한다.²⁵⁾ 즉, 모든 문화체계는 존중되어야 하며 교사와 학생은 다양한 문화들의 공존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사고와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 미술교육은 사회재건주의 교육철학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30년대의 경제 대 공황기를 거쳐 1960년대에 소수 이민자들의 증가로 문화적 위기에 처하자, 위기를 극복하여 새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의 수단적 역할이 강조되었다. 즉, 교육은 일원론적인 사고를 지양하고, 사회와 문화의 다원성을 교육에 반영하여 사회적 다양성 함의를 지향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1920년대 진보주의가 아동의 내적인 자발성과 흥미를 중요시 한 나머지 개인적 표현에만 집중하고 사회적 문제를 등한시 했다는 비판이 일어나자, 술은 개인적인 표현 이상의 의미로 개인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재건주의적인 성향이 미술교육에서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등장한 미술교육의 분위기는 다문화 미술교육을 설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즉, 미술교육에서도 교육과정을 통해서 사회와 교육, 미술교육을 통합하여 다문화주의 미술교육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셋째, 예술사회학의 영향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테크놀로지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예술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예술사회학에 대한 접근이 요구되었다. 즉 예술가는 그가 존재하고 있는 사회의 정치, 문화, 종교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의 작품세계를 만들어 갔다. 결국 예술 작품은 사회적 산물이고 예

25) 이옥선. 맥피(McFee)의 미술교육사상과 방법론 연구 다원주의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31

술가는 사회이며, 관련 속에서 생산자라는 관점을 가지게 된다.²⁶⁾ 예술은 미적 가치 뿐 아니라 교육적 가치와 상업적 가치, 종교적 가치 등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예술은 사회 문화적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예술작품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의해서 사회통합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백피도 미술의 사회적인 관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미술은 문화 이해와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한 핵심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술을 통한 사회의 통합이라는 예술 사회학의 기본 관점을 미술교육에 적용하고 있다. 결국 예술사회학은 예술의 사회적인 기능 즉 예술을 통한 사회 통합, 사회복지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사회학의 연구는 예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인 요인들에 대해 연구하며 인류학과 사회학의 도움으로 사회에서 예술의 기능을 분석하는 것이다.

넷째, 사회학과 인류학의 접목이다. 미술은 사회학과 철학, 종교 등의 다양한 학문적 철학적 영역들 사이에 위치하므로, 미술은 위의 학문적, 철학적 영역들과의 공통분모를 가진다.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에서 인류학적 접근은 그 미술을 제작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미술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집단의 미술이 가진 배경적인 측면을 존중해야 한다. 즉 미술이 개인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서 사회에서 미술이 어떤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가. 미술이 문화를 유지하고 전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서 미술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등에 대한 확대된 관점에서의 미술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미술교육 연구에 사회학과 인류학의 통합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학생들에게 사회문화와 미술의 관계에 대해 확장된 사고를 요구하며 사회학과 인류학을 미술교육 연구의 기초분야로 인정하게 되었다.

26) 양정숙. 포스트모더니즘과 다문화 미술교육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43

이와 같이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은 미술을 통해 다른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여 인간의 삶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토록 한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 세계는 물질, 인적 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의 교류로 지구촌이라는 의미를 실감나게 하고 있다. 세계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이루어지며 그 미술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문화의 유지와 계승 발전에 있다. 또한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은 다양성으로 설명되어진다. 서로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인식의 지평을 넓혀나감은 우리 시대 교육이 짊어져야 할 또 다른 책무이다.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은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이해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중요한 교육의 한 방법인 것이다.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은 미술교과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과학, 인류학, 역사 등 여러 교과가 함께하는 통합적 성격을 지니고 다른 문화권의 미술문화의 이해와 감상 능력을 신장시키며 자국의 미술 전통문화의 특성 및 가치 발견과 정체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의 정의가 확장되고 변형됨에 따라 스테(P.L.Stuhr), 왓슨(R.Wasson), 페트로비치 므와니키(Petrovich-Mwaniki) 등의 보다 급진적인 교육자들은 다문화 미술 교육의 목표를 사회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확대시켰다. 이들은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이 다른 문화의 이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것의 목표를 “지역, 국가, 세계의 모든 사회 계층의 구성원간의 권력과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촉진하는 것에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변화와 해방을 위한 효과적인 전달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²⁷⁾ 다음과 같이, 다문화 미술교육

27) 황숙희, 미술교과서 작품해석 연구-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31

의 과정안내 지침과 전략의 기초에 대한 여섯 가지 입장을 통해서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다.²⁸⁾

첫째, 우리는 미적인 제작과 다양한 문화 경험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사회 인류학 관점을 지지하며 미술 작품이 생산된 사회문화적 맥락과 함께 미술 작품 제작자에 대한 지식에 초점을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우리는 문화적, 사회적 교류자의 자격으로 지도해야 하며, 교사는 문화의 정체성과 사회적 배경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 국가적, 세계적 관점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미술과 시각문화의 교육과정을 계획할 때, 교사는 지역사회를 중심에 두어야 하며 학생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신념, 공동체 문화를 인지하고 교과과정 안에 포함시켜 유용하게 사용해야 한다.

넷째, 우리는 미학적 사조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집단과 그에 따른 가치와 훈련을 인지하기 위하여 인류학적 접근 방법을 지지한다.

다섯째, 우리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교수법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으로 교실과 지역사회, 국가와 세계에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보여줄 것이다.

여섯째,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과 계급, 성, 연령, 정치, 종교, 지역, 인종 등 모든 인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끼치는 역동적인 복잡성에 초점을 두기를 원한다. 우리는 미술과 시각문화 교육과정에서도 소외되었던 영역이 제 목소리를 찾게 해주는데 더욱 민주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개인, 국가, 세계 문화 속에서도 권리를 박탈당한 것 뿐 아니라 부여 받는 것에도 역시 민감해야 한다.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은 다문화주의 교육에 여러 민족에 의한 미술과 관련된

28) 안정하. 다문화미술교육의 의미와 실천적 방안 - 초등학교 미술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p.14-15

문화유산이나 민족 전통, 미술의 역사와 철학, 미학이론, 미술작품에 맥락적인 해석을 덧붙인다.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은 학생들의 세계관에 대한 지식이나 미학적 선택 그리고 미술을 통해 전달되는 상징적 의미들을 넓히고 학생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확장시키며 창의적, 사회적, 정신적인 성장을 돕는다.

따라서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은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에게 모더니즘의 한계를 넘어 그들 자신의 미술문화유산과 그 동안 변두리로 밀려났었던 다양한 미술문화를 각 문화 고유의 맥락에서 접근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문화적 정체성을 갖게 하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이해하며 존중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적 평등을 증진시키고, 모든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을 계발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²⁹⁾

2. 다문화주의 미술교육과 사회재건주의

미술은 미적 가치와 함께 창작의 가치, 교육적 가치, 정신 위생적 가치, 상업적 가치, 역사 이해의 가치, 종교적 가치 등을 가진다. 즉 미술은 미적인 특성이외에 사회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역사적, 사회적 체계의 반영물이라는 것을 뜻한다. 미술가들은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지 미술적인 상징을 통해 사회가 직면한 보편적인 문제들이거나 자신이 처한 일상 속의 문제들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술을 특정한 사회에 배태되며 그 사회의 문제에 반응하는 하나의 문화적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우, 미술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및 그러한 다양성의 주체인 특정한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된다. 미술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문화인류학의 시각과 일치한다. 문화인류학은 미술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활용하여 그것을 창조해낸 공동체의 특

29) 김혜숙. 미술교육에 있어 다문화적 접근과 적용. 춘천교육대학교 예체능연구회. 1997. pp.114-118

성을 추론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이것은 문화인류학적 관점이 다문화주의 미술 교육의 방법론으로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까닭이다. 미술학습과 문화인류학 학습은 문화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미술을 통해 문화공동체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교육목표 역시 동일하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인류학이나 사회학은 타문화권의 미술을 이해하는 최적의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³⁰⁾

맥피는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류학적인 관점에서의 미술을 강조하여, 문화와 미술을 연계하였는데 이것은 결국 사회학과 인류학을 미술교육연구의 필수적인 기초분야로 인식하는 것이 되었다. 맥피의 미술에 대한 인류학적인 접근은 그 미술을 제작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미술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집단의 미술이 가진 배경적인 타당성을 존중하도록 한다. 즉 미술이 개인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서 사회에서 미술이 어떠한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가, 미술이 문화를 유지하고 전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서 미술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확대된 관점에서의 미술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미술교육 연구에 사회학과 인류학의 통합이 필요하다. 결국 미술교육에 대한 사회학과 인류학의 통합적인 연구는 학생들에게 사회와 문화와 미술의 관계에 대하여 확장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관점에서 맥피는 인류학과 사회학을 미술교육연구에 통합하여 적용하였다.³¹⁾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에서 가장 주된 관심은 차별과 편견에 대한 비판적 반성과 문화적 다원주의에 대한 관심이다. 문화와 본질적으로 연관을 갖는 미술교육에서 다문화적 접근은 더욱 강조되어야하고, 다른 교육 보다 먼저 실천되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의 근본이념은 무엇인가에 이해와

30) 박정애. 다문화를 위한 사회학과 인류학의 방법. 미술교육 제3호. 1993. pp.27-29

31) 이옥선. 전개서. p.97

그에 따른 교수 학습 방법이 필요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재건주의 이론은 교육의 사회적 개혁기능과 개인의 자아실현에 초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개혁함으로써 사회 중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강조하며 현 사회적 부조리와 모순을 치유하고자 했다. 사회재건주의는 서구 중심주의, 계층주의, 성차별주의 등에 대한 비판을 통해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토대로 한 사회개혁과 자아실현이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와 지역사회의 밀접한 연관성을 강조하며 참여와 의사소통, 토론 등의 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한 사회적, 계층적, 경제적 경험에 대해 생각하면서 사회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와 감수성을 키워나가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 재건을 목표로 했다. 여기에는 교사의 민주적, 과학적 설득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셀린은(Peter Schellin)은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겪으며 사회의 가치를 알고 좌절도 하며 사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사회의 꿈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미술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은 다문화주의 사회교육과 밀접하며 사회재건주의는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될 수 있다.³²⁾

3.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의 영역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에는 타 미술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모든 계층의 미술을 다루고, 대중미술을 포함한 다양

32) 손지현. 다문화 미술교육의 확장. 미술교육논총 vol 7-2. pp24-26

한 미술의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원적 관점에서 맥피는 미술교육 내용에 대한 변화와 다양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미술교육의 내용을 주장했다.³³⁾

첫째, 미술교육의 내용으로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문화의 미술이 형성되어, 다른 나라와 민족의 미술, 민속 미술, 공예품, 여성미술, 원시미술, 순수미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학습해야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문화 속 미술의 역할을 알 수 있는 민속미술이나 공예품 등이 과거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학습하는데 근본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속미술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와 민족의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욱 확대된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결국, 맥피는 이러한 미술이 미술교육 내용으로 포함되었을 때 다양한 사회와 사람, 문화와 미술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다.

둘째, 맥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공예품에서 대량생산된 모든 제품디자인과 환경디자인, 의상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모든 영역의 디자인이 미술교육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우리가 교육에서 환경디자인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계속 무질서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고 각 개인은 개인이 소유한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도 없이 자신의 물건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는 시각적인 이미지나 구어(口語)나 문어(文語)보다 우세한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인 능력과 디자인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대중매체의 발달로 우리에게 익숙해진 대중미술이 미술교육에 포함되

33) 이옥선. 전계서. pp62-66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공예품이나 컴퓨터 그래픽, 만화 등을 회화나 조각이 포함된 순수미술 보다 덜 가치 있게 여겨왔다. 그러나 대중매체가 중요한 사회변화의 요인으로 각광으로 받으면서 그것 또한 교육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대중매체가 다양한 이미지들을 비판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교육된 시민을 요구하고, 컴퓨터를 통한 정보수단의 발달은 학습자로 하여금 세계문화에 대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각적인 해독력을 요구하게 되면서, 맥피도 컴퓨터 이미지나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문화 내용과 영화, 만화, 광고 등이 미술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다원주의는 다양한 이미지가 혼재하고 있는 사회에서 학습자들에게 시각적인 해독력 신장과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맥피의 주장과 같이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의 영역에서는 다양한 사회가 요구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미술을 통해 미술과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타인과 타인의 문화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인정하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이나 문화적인 정체성을 함양하는 등의 다양한 사고와 시각적 비판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4.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의 접근과 학습 방법

많은 미술교육학자들이 다양한 문화의 미술작품을 공부하기 위해 사회 인류학적 기초를 사용할 것을 강조해왔고, 맥피는 미술이 개인적인 의사소통을 넘어서 사회에서 어떠한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서 미술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미술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미술교육 연구에 사회학과 인류학의 통합의 사회재건주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문화주의 교육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필요하며,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술교육에서 문화의 유지와 전수가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 또한 미술을 통해 다른 문화를 이해하며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고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에 대한 위와 같은 의견을 보이는 바바넬과 빌링스(Barbanell & Billings), 뱅크스(Banks), 맥피(Mcfee)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1) 바바넬과 빌링스 (Barbanell & Billings)

바바넬과 빌링스의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에 대한 접근방법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다.³⁴⁾

첫째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미적-개인적 접근으로, 여기서 미술이란 개인의 생각이나 믿음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전통적인 문화적 다원주의에 기초하여 다양한 문화들을 그대로 인정한다. 다문화주의 미술교육 과정에 대한 미적-개인적 접근의 미술수업에서 교사는 시각이미지를 통해 어떤 아이디어나 주제를 학생들에게 탐색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목표의 초점이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다면, 그 문화에서 만들어진 미술 작품이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학습목표가 학생 개인의 미적 경험에 있다면 표현 수업이 전개될 것이며 이 두 가지 방법이 결합되어도 좋다. 미적-개인적 접근에서 미술이란 개인의 생각이나 믿

34) 김혜숙. 전계서. p.235

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 사이에서 토론을 이끌고, 개인의 미적 관점이 잘 나타나 있는 미술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 미술가들과 학생들 간의 대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접근에서 학습 주제와 관련이 있는 시각이미지와 형태들은 어떠한 것이라도 미술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미술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미적-개인적 접근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양한 미술 문화의 전통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술은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것으로 사회적 맥락과 더불어 이해되어야 하며, 미술가들은 자신의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자신이 속한 문화의 생각과 가치들을 작품을 통해 반영시키는 개인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둘째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윤리적-사회적 접근이다. 이것은 사회 속 불평등에 대한 반작용에서 비롯된 갈등이론³⁵⁾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접근의 미술수업은 일반적인 사회적 이슈에서 출발하지만, 미술은 문화적 정체성 확립 뿐 아니라 정치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까지 확대된다. 이는 사회적 이슈들을 비판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미술을 통해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고, 사회변화와 해방을 추구하는데 있다. 이 윤리적-사회적 접근은 각 문화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교육과정의 폭을 넓힘으로써 사회와의 통합적 측면까지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주의 미술교육 방법은 미적-개인적 접근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윤리적-사회적 접근으로 옮겨가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서구 중심적인 교육과정을 점점 탈피하여 각 나라마다 자국의 현실에 적합한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 곧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을 행

35)갈등론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자원을 둘러싼 집단 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갈등론자들은 다양한 집단 간의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공존을 전제로 하고 있는 문화적 다원주의자들의 입장과는 달리, 이미 집단 간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적 지배와 복종의 관계, 불평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다.

하는 국가들이 국가적 특성, 지역적 특성에 맞게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2) 뱅크스(Banks)

다문화주의 교육을 실시할 때는 인종적 태도나 행동을 바람직하게 발달시킬 수 있으며 이미 형성된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 되었지만, 최근 다문화주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방법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방법에 도움이 되고자 뱅크스가 제안한 다문화주의 교육의 접근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³⁶⁾

뱅크스가 제안한 첫 번째 방법은 기여적 접근 방법(The Contributions Approach)이다. 이것은 현존하는 교육과정에 민족적 영웅이나 인물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거나, 명절이나 기념일과 국경일 등을 전후하여 인종과 민족에 대한 주제를 교육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기여적 접근은 타문화의 기여를 재인식하기 위한 것으로 다문화적 내용을 교육과정에 통합시키는데 가장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된 교육과정의 틀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문화적 내용을 부수적인 요소로 지각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여적 접근 방법은 춤, 노래, 공예품, 음식 등 구체적인 자료에 초점을 맞추기 쉽지만 이로 인하여 인종에 대한 정형화와 고정화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역사적 위인, 명절 및 국경일, 각 문화권의 독특한 문화적 양식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방법은 부가적 접근 방법(The Additive Approach)으로 기여적 접근

36) 김혜숙. 전계서. p.120

방법보다 폭넓게 접근하는 방법이다. 부가적 접근 방법은 교과 단원이나 책으로서 기존 교육과정에 첨부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누가,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이다. 예로, 고흐의 평면적 표현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일본의 목판화 양식까지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교육과정 구조상의 변화 없이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내용이나 개념, 주제와 관점들을 첨가하는 방법들이 있다.

세 번째 방법은 변형적 접근 방법(The Transformation Approach)이다. 이 방법은 교육과정의 기본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학습자들 하여금 다문화적인 사건, 개념, 주제, 문제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추수감사절을 청교도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인디언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이 있겠다. 교사는 특히 상반된 입장에서 어떠한 현상을 볼 수 있도록 역할놀이 등을 격려해 줄 수 있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적 관점에서 내용, 개념, 주제 등을 다루어 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구조를 개혁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접근방법을 사회과 교육과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 관련성(cultural connectiveness)’이라는 방법이 필수적이다. 즉, 문화적 다양성을 일상의 학습경험 속에 용해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것으로 이 접근법은 서로 다른 집단의 다양한 관점, 준거를 내용을 도입하여 교육과정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네 번째 방법은 사회적 행동 접근 방법(The Social Action Approach)으로, 변형적 접근과정에서 주제나 단원에 포함된 개념, 관심사, 문제 등에 대하여 토의하고 또한 결정과정에 학생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유아의 경우에는 이러한 접근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전체적인 학교환경을 구성

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특성이 있다. 중요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을 짓거나, 학습자의 실생활에서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도와주는 방법 등이 있겠다. 즉 창의적인 미술활동을 사회적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마지막 방법은 혼합적 접근 방법(Mixing and Blending Approach)이다. 이것은 다른 방법들과는 달리 포괄적으로 주제나 상황에 따라 여러 교수법을 혼합하는 방법이다.

3) 맥피(Mcfee)

마지막으로 맥피의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의 접근방법을 살펴보겠다. 맥피는 미술과 생활은 분리될 수 없으며 미술품을 통해 가치변화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 아래 맥피는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의 방법을 환경디자인 교육으로의 접근, 문화 학습으로의 접근, 미술 감상과 미술사 학습으로의 접근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37)

첫째는 미술을 통한 환경디자인 교육으로의 접근 방법이다. 맥피는 인간은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integral part)으로서의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환경은 디자인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디자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미술교육을 통한 이러한 시각적 판단력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경에 대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구성하는 디자인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환경디자인 교육을 강조하였다. 질서

37) 이옥선. 전게서. pp.105-106

(order)와 다양성(variety)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 디자인을 학습자들에게 학습시키는데 있어서 전통적인 디자인 학습에서는 디자인의 구성 요소만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디자인에서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구는 그 기능 뿐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데 사용된 재료나 장식과 구조를 통해서 그 의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언급한다.

1. 쓰임 : 그 미술품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 미술품은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의 감정을 포함하고 있는가?

2. 기능 : 그 디자인이 어떻게 사회조직을 나타내고 문화적 가치와 태도와 신념 등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가?

3. 의미 : 그 디자인은 사회의 사람들과 기존의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또한 그 디자인은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4. 시각적 정보 : 그 디자인의 시각적 요소가 주어진 배경에서 그 물건의 쓰임, 기능, 의미와 조화를 이루도록 질서와 다양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5. 정보 : 그 미술품은 그것이 만들어진 문화적 본질 (가치, 기술적인 발달, 상징의 복합성)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맥피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디자인의 환경 속에서 인간과 문화와 사회가 얼마나 상호 의존적인지 알아야 된다고 말했다. 위와 같은 디자인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 후에 환경에 대한 판단 능력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는 문화에서 미술에 대한 학습으로, 미술품은 사회 문화의 모든 변화와 가치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학습자는 주위의 존재하는 사물들을(도자기, 요리도구, 운동장, 시계, 광고, 건축, 의상, 사진, 거리 등) 통해서 그것들이 나타내는 사회적 문화적 기능을 알고, 어떤 사회적 문화적 가치들이 전해지는지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은 자신의 문화와 다른 사람의 문화권 속의 미술품들을 통해서 미술과 문화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셋째는 문화상대주의에 의한 미술 감상과 미술사 학습으로의 접근이다. 맥피는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를 비교 감상함으로써 두 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게 된다고 했다. 우리는 다른 문화권의 미술을 감상할 때, 자신의 문화적 배경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닌, 그 문화권에 대한 배경을 토대로 보다 심층적인 안목으로 감상해야 한다. 이것은 자민족 중심주의를 경계하고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그 미술품의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보다 심층적인 안목으로 감상해야함을 뜻한다. 이러한 문화 상대주의적 미술 감상법은 미술사 학습에도 적용할 수 있다. 맥피는 시대적 역사적 구분을 통한 미술사 학습은 지식의 조직화에는 도움을 주지만 미술에 대한 지식의 일부분만을 제공하고 사회속의 미술과 미술 속의 사회를 인식하는 것에는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미술사 학습은 다양한 시대와 사람들의 삶에서 미술의 다양성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이 제작된 사회와 문화를 배경으로 그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 상대주의 관점이 미술과 학습과 미술 감상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되는 것이다.³⁸⁾

교사는 바바넬과 빌링스(Barbanell & Billings), 뱅크스(Banks), 맥피(Mcfee)가 제안한 다양한 다문화주의 교육의 학습 방법을 참고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38) 이옥선. 전계서. pp.75-76

정체성에 대해 혼란이 아닌 안정됨을 느끼고 타인과의 유대관계에서 공감을 느끼는 개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5.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의 필요성

현재 국제화와 세계화를 지향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며 복합적인 문화 양상을 띠게 되며 우리 사회도 다양한 문화적 가치와 생활양식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는 곳이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단일 문화 국가임을 강조하며 동질성의 강조를 이야기 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과거에는 사회변천이 급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가치관이나 행동양식, 사고방식 등이 오랜 시간을 거치며 사회 사람들의 기준이 되었고 그것은 조부모에게서 부모에게,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세습되어 그 방식이 잘 유지가 되었다. 따라서 세대 간의 마찰이나 갈등이 적었고 상호 이해가 가능했으며 존중과 배려가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100년 이면 금수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된지 오래며, 일 년 안에도 급변하고 있는 우리 사회와 국제 사회는 거부할 수조차 없는 이질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행동 양식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넘치듯 밀려들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이곳저곳에 흩어져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다.

게다가 국제적 관계가 점점 밀접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른 나라를 이해하고 그들과 협력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필요로 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관점 그리고 국가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질적이며 다양한 문화를 교육받아서 그것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미술에서 작가의 작품은 자의와 타의에 의해 역사적, 사회적 체계의 반영물이 된다. 구체화된 미술 형태 속에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인지적, 정서

적 정보와 함께 당시의 현실이 압축이 되기도 하고, 변형이 되거나 합쳐지기도 한다. 문화적 다원주의를 주장한 맥피(Mcfee)에 의하면 미술교육은 문화적 다양성을 교육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르이다. 예술가들의 사회 문화적 경험들은 작품을 통하여 반영되며 당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최고의 문제들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모든 문화는 각각의 문화에 기초한 개성 있는 미술개념이나 이해방식을 가지며 미술작품은 그에 따른 사회 문화적 맥락과 일맥을 가진다. 즉 미술은 학생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성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적 가치와 신념을 제공하는 도구가 되고 안내자가 될 수 있다.

슈츠(Schutz)는 미술이 인간의 의사전달을 위한 최고의 형태라고 주장하며 학교에서 미술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문화중심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미술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한 다양한 미술문화에 대하여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버리고, 단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그 배경을 이해하고 비교 체험하며 자문화의 정체성에 대해 깨닫는 기회가 된다. 이로써 개인이 자문화에 대한 통찰력도 기르게 되며, 자문화에 대한 의식도 높일 수 있다.³⁹⁾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뱅크스(Banks)는 “다문화주의 교육은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사회 계층적 문화적 기반을 지닌 학생들에게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탐구 영역이자 새로운 학문영역이다. 이것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집단들과 함께 상호 작용하고 협상하고 서로 의사를 교환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 등을 획득하도록 하여 공공의 선을 위해 작동하는 시민사회, 도덕적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는 함께 살아가며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공존하는데 힘써야 한다.

39) 안정하. 전개서 pp.14-15

V. 다문화주의 미술교육 방안

1. 수업의 방향

본 연구는 다문화 미술교육을 위하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 학생들과 다문화 학생들이 함께 교육을 받고 있는 현장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다.

다문화주의 교수 학습 프로그램에서 그동안 다문화 가정 학생을 중심으로 다문화주의 교육을 이해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교육적 효율성을 얻을 수는 있었지만, 다문화주의 가정의 학생 이외에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주의 교육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주의 가정의 학생들의 특별함을 드러내기 보다는, 그들과 우리나라 학생들이 함께 효율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수용하고 소통하며, 사고방식의 전환과 함께 교육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교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나아가 미술로부터의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이해하며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도안을 작성해보고자 하였고, 학생 모두가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고등학교 현장 실습을 하면서 이론과 현장에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미술 교과목의 수업은 더욱 그러하다. 우리가 계획한대로 실행하기에는 수업 시수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교사는 한 단원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수업을 계획하기 힘들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본시 교수 학습 과정 안을 제시하였다.

2. 수업의 방법과 목표

다문화주의 가정의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이 함께 효율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수용하고, 사고방식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협동학습을 계획하였다. 이 수업은 학급의 단체 사진을 학생의 얼굴 부분대로 나누어 준비뿔기를 한 뒤 각자 자신에게 선택된 친구의 얼굴을 개성 있게 여러 가지 기법으로 표현한 뒤, 각자의 작품이 완성이 되면 그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단체 사진인 또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이다. 협동학습을 통한 수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학생들은 표현 과정을 통하여 관조하는 법을 알게 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림을 그릴 때, 그리는 대상을 자세히 보려고 하지 않는다. 자세히 관찰하는 습관이 부족하고 생각하는 대로 보고 그린다. 게다가 복잡한 대상이라면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임의대로 결정하고 그려버린다. 학생들은 이렇게 눈도 생각도 관념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무엇이든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면 새롭게,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 관념에서 벗어나 창조하는 힘도 길러진다. 또 어떤 대상이든 그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관조하는 것이 필요한데, 관조를 통한 대상의 느낌과 경험에 따라 표현도 달라지고 다양해질 수 있다.

둘째로 학생들은 친구와 작품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 자신의 얼굴을 그리는 것이 아닌 친구의 얼굴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면,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친구의 느낌이나 생각도 표현에 드러날 수 있다. 대상을 잘 살펴서 표현을 하다보면 집중도 하게 되고 정성껏 그릴 수 있으며 자신감이 붙고 소중함도 느끼게 된다. 정성과 자신감이 묻어나는 작품은 다른 작품보다 감상자에게 더 큰 감동을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얼굴도 다른 친구가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내 작품에 공을 들이

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타인의 작품 또한 소중하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셋째로 학생들은 크리티크(critic) 수업을 통하여 개성 있는 친구들의 개성적인 표현을 감상하면서 다문화인과 한국인의 구별 없이 한국인이든 다문화인이든 사람은 모두 개성과 특징을 가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다문화인과 한국인의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넷째로 크리티크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친구들의 의견을 들으며 타인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갖게 된다.

다섯째로 협동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어떤 학생이 소극적이고 적극적인지 파악할 수 있고, 학생들이 작품 하나하나 마다 자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여섯째로 협동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함께 하면 멋진 작품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3. 수업의 실제 - 본시 교수 학습 과정 안

이 수업의 주제는 일반 학생들과 다문화 학생들이 함께 교육을 받고 있는 학교에서 협동학습을 통하여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이해하며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한 협동학습을 통한 관계성 회복에 있다. 학습 목표는 첫째 대상에 대한 관조이고 둘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신감과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다. 셋째는 다양한 시각과 사고를 통한 개성 있는 표현하기이며, 넷째는 작품에 대한 감상과 비평을 통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수업의 방법은 학급의 단체 사진을 학생의 얼굴 부분대로 나누어 제비뽑기를 한 뒤 각자 자신에게 선택된 친구의 얼굴을 개성 있게 여러 가지 기법으로 표현한 뒤, 각자의 작품이 완성이 되면 그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단체 사진인 또 하나의 작품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차시는 교육 현장에서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2차시로 준비하였다.

다음은 1/2 차시의 수업 지도안이다.

단원	표현 - 단체 사진 그리기		차시	1/2	관련	협동 학습
주제	협동 학습을 통한 관계성 회복					
학습 목표	① 친구의 얼굴을 관찰하고 특징을 살피며 친구를 이해한다. ② 친구의 얼굴을 다양한 기법으로 개성 있게 표현한다. ③ 작품에 집중하여 정성스럽게 표현한다.					
지도 단계	학습과정	교수 학습활동		참고 자료 유의점	시간	
		교수활동	학습활동			
도입	인사 학습 환경조성 수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 인사 및 출석점검 학습 분위기 조성 준비물 확인 본시 소개 및 학습 목표 제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비물 교사: 출석부. 참고 자료, 유	3분	
	동기 유발 주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료의 특성설명 참고 자료 제시 다양한 표현 감상 작업 과정 중 주의 사항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료의 특성알기 참고 사진 감상 다양한 표현 감상 작업 과정 중 주의 사항 확인 		인물, PPT 학생: 색상 펜, 아크릴 물감, 마카, 수채화 물감, 오일 파 스텔, 물통, 붓, 도화지	5분
전개	실기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비뽑기 (단체 사진을 나누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비뽑기 (-오려진 친구 얼굴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비물 교사: 출석부.	35분	

		<p>을 준비 뽑기하여 자신이 그럴 친구 선택하기</p> <p>-친구의 얼굴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생각하기</p> <p>-기법에 어울리는 재료 선택하기)</p> <p>오리고 준비 뽑기하도록 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개인별 지도 (칭찬과 더 나은 방향 제시하기. 친구의 개성을 잘 살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 학생의 질문에 답하기 	<p>• 작품 제작 전념</p> <p>(-친구 얼굴에 대한 관조와 이해를 통한 특징 살피기</p> <p>-사진을 보며 정성스럽게 밑그림 그리기</p> <p>-자신이 생각한 기법 표현에 맞는 재료를 이용하여 채색하기)</p> <p>• 어렵고 궁금한 점 질문하기</p> <p>(재료 사용의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들과 기법 등에 관한 질문하기)</p> <p>• 개별 작품 완성</p>	<p>참고 자료, 유 인물, PPT</p> <p>학생: 색상 펜, 아크릴 물감, 마카, 수채화 물감, 오일 파 스텔, 물통, 붓, 도화지</p>	
	순회지도				

다음은 2/2 차시의 수업 지도안이다.

단원	표현 - 단체 사진 그리기		차시	2/2	관련	협동 학습
주제	협동 학습을 통한 관계성 회복					
학습 목표	① 작품에 대한 표현을 마무리하고 작품을 모두 이어 붙여 하나로 완성한다. ② 크리틱(critic) 수업을 통해서 친구들의 다양한 시각과 서로 다른 개성적인 표현을 감상한다. ③ 작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류를 한다. ④ 작품을 감상하면서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그 느낌과 생각을 발표한다. ⑤ 선생님의 평가를 듣는다.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 학습활동		참고 자료 유의점	시간	
		교수활동	학습활동			
도입	인사 및 학습 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인사 및 출석점검 • 학습 분위기 조성 • 준비물 확인 			2분	
	전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학습 확인 (-작품 완성 확인하기) • 본시 학습 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학습 확인 (-작품 완성 확인하기) • 본시 학습 목표 확인 		3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제작 시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제작 시간 기억 		
전개	크리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된 작품 순서대로 이어 붙이기 • 학생 작품에 대한 설명 듣기 • 작품 비교 감상 (-학생에게 질문하며 학생들이 작품에 대한 질문과 생각을 잘 이야기하도록 유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된 작품 순서대로 이어 붙이기 • 한 사람씩 작품에 대해 설명 • 작품 비교 감상 (-작품의 의도 및 작품에 대한 이야기 및 의견 나누기 -선생님과 다른 학생의 질문에 답하기 -서로에 대한 작품 감상과 공유를 통해 각자 다른 점과 친구의 개성을 인정하고 이해하기 -친구들의 의견과 생각 수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물 교사: 출석부, 참고 자료, 유인물, PPT 학생: 색상펜, 아크릴 물감, 마카, 수채화 물감, 오일 파스텔, 물통, 붓, 도화지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정리	차시예고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지도 및 조언 • 차시 예고 (-다음 차시를 위한 준비물 및 방법을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지도 및 조언 • 차시예고 (-다음 차시를 위한 준비물 및 방법 설명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차시 준비물 알림 	5분

4. 평가

- 평가의 기본 방향

첫째, 미술 학습 내용 및 학습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성취도를 파악함으로써 목적한 바를 달성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미술교육의 질을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둘째, 학생의 개성과 창의력, 잠재적 능력이나 정서의 계발과 표현의 전반적 성취도를 평가한다.

셋째, 결과만의 평가에서 벗어나 과정을 통한 지속적인 관찰을 함으로써 수업 태도와 수업 과정 및 작품의 제작 의도 등이 평가에 균형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

넷째, 사람은 누구나 개성과 특징이 있으며 친구와 자신의 서로 다른 부분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는지 평가한다.

(1) 교수-학습과정 단계별 고려사항 및 자기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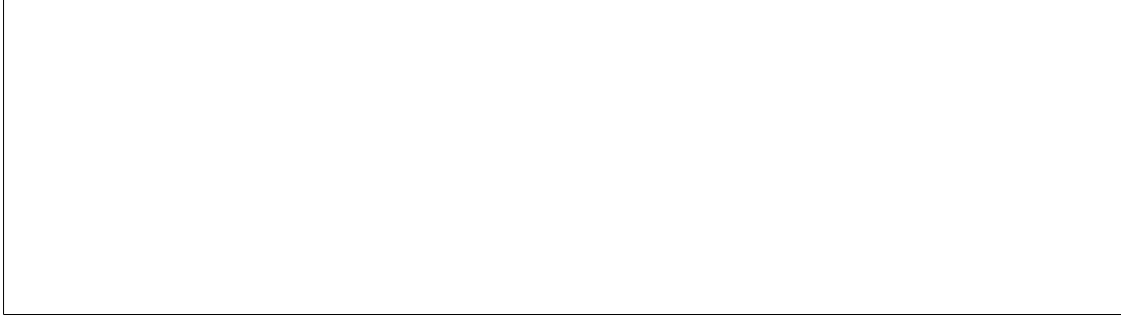
구분	주요확인사항	판정
수업 전	협동학습의 선택과 결정이 학생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는가?	
	결정된 협동학습은 가용한 수업시간에 적절한가?	
수업 과정	협동학습 실시 수업을 위해 적당한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가?	
	협동학습 작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고려를 하고 있는가?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를 하고 있는가?	
	수업 내용을 구조화하고 명확히 하고 있는가?	
	수업 중 교사가 던지는 질문의 질은 적절하며 양은 충분한가?	
수업 분위기	협동학습에 대한 성취 가능한 학습 목표를 제시하였는가?	
	협동학습 중심의 수업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가?	
수업 후	협동학습 수업 목표에 타당한 평가를 하였는가?	
	협동학습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적절히 활용하였는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주는 피드백은 적절했는가?	

(2) 수업과 수업계획을 위한 원리 및 자기점검

구분	세부 확인 사항	판정
수업목표 제시	학생들이 협동학습의 학습목표를 명확히 인지하였는가?	
	학생들은 협동학습의 학습목표를 획득하는 절차를 이해하였는가?	
	협동 학습 후 기대되는 결과나 예시를 관찰할 기회가 있었는가?	
학습동기 유발	학생들이 협동학습 수업목표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하였는가?	
	학생들이 협동학습 수업목표의 달성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였는가?	
	학생들이 협동 학습 내용에 호기심과 흥미를 갖도록 하였는가?	
학습활동과 수업내용의 제시	학생들이 협동학습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는가?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수매체를 선택하고 활용했는가?	
	협동학습 내용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쉽게 설명되었는가?	
연습 및 응용	학습한 내용의 전이를 촉진하기 위한 연습이 사용되었는가?	
	연습의 양은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는가?	
	반복 연습의 기회가 주어졌는가?	
형성평가와 피드백	협동학습 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과 강화가 있었는가?	
	협동학습 오류에 대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교정이 있었는가?	
	학생들이 자신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가?	
전이와 일반화	협동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강구되었는가?	
	학습한 내용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는 경험이 주어졌는가?	
	협동학습 직후에 내용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는가?	

(3) 학생의 자기점검 및 교수 평가

교육 과정 및 학습내용 구성 준거	판정
교사가 협동학습 목표를 명확히 인지시켰는가?	
협동학습 목표의 달성에 자신감이 생겼는가?	
협동학습 내용에 호기심과 흥미를 생겼는가?	
수업 시간 중 실기 수업을 위한 시간은 적당했는가?	
협동학습 내용의 난이도는 적절했는가?	
수업 중 교사가 던지는 질문의 질은 적절하며 양은 충분했는가?	
수업 중 교사가 던지는 질문에 대답을 잘 하였는가?	
교사가 주는 피드백은 적절했는가?	
교사는 적합한 교수매체를 선택하고 활용했는가?	
협동학습 내용에 대한 설명이 수준에 맞게 쉬웠는가?	
자신은 협동학습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는가?	
협동학습 활동의 양은 적절했는가?	
이해, 표현, 감상이 적절하게 잘 조화된 수업이었는가?	
친구의 작품에 대한 의견을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가?	
자신의 장점을 파악하고 이해했는가?	
친구의 장점을 파악하고 이해가 되었는가?	
나와 친구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가?	
수업과 교사에 대한 질문과 건의 및 기타 의견	



5. 학습 보충 자료

1) 단체 사진



[그림1] 2010 G20 각국 정상 단체 사진



[그림2] 안산영어마을 다문화가정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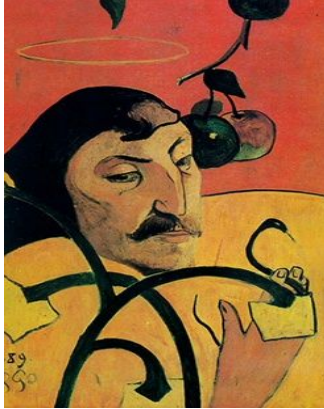


[그림3] 제주시 다문화 방과 후 학교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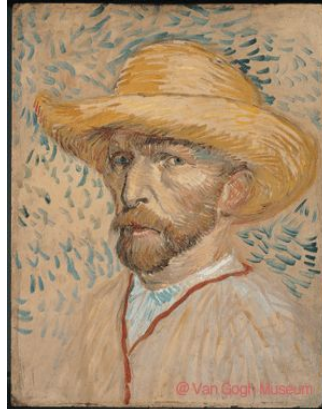


[그림4] 성신여자고등학교 1학년 단체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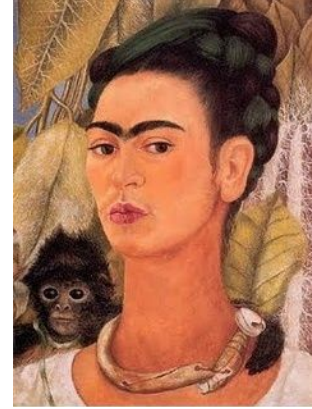
2) 다양한 표현 기법 참고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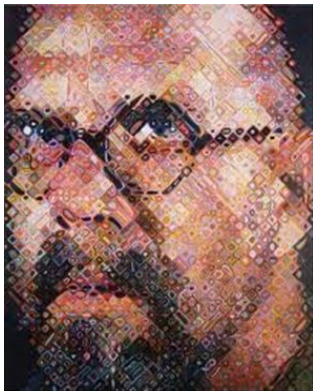
[그림5] 고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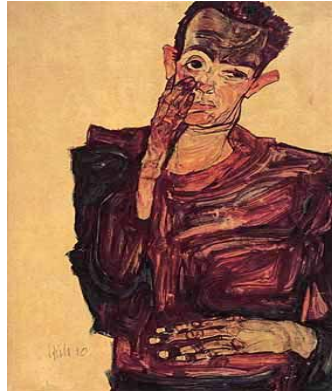
[그림6]고흐



[그림7]프리다 칼로



[그림8] 척 클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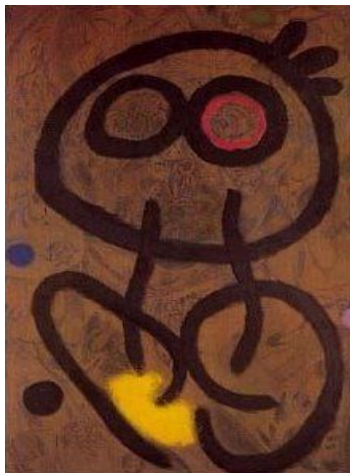
[그림9] 에곤 실레



[그림10] 루시안 프로이드



[그림11] 앤디워홀 <마릴린 먼로>



[그림12] 호안 미로



[그림13] 유근택

3) 표현재료의 특성 - 아크릴 물감의 성질

아크릴 물감은 물을 보조제로 사용하므로 유화물감에 비해 사용이 간편하고 내구성이 강하며 빨리 말라 여러 번 겹쳐서 그릴 수도 있다. 수채화물감보다도 빨리 마르므로 단기간에 제작할 수 있지만 일단 마르면 완전 고착되므로 수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접착성이 강하여 캔버스·종이·천·나무판·가죽·아스테이지·필름·석고·벽면 등 약간의 흡수성만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다. 때로는 톱밥을 섞어 질감의 변화를 주기도 하며 콜라주할 때 접착제로 쓰기도 한다. 아크릴물감의 붓은 탄력과 내구성이 강한 나일론 붓을 주로 쓰는데 뜨거운 물로 씻으면 붓이 휠 염려가 있다. 또 물감이 한번 마르면 물로 씻어지지 않으므로 계속 물에 담가 두고 써야 한다. 투명성도 높아 얇게 칠하면 수채화물감의 효과도 낼 수 있으며, 15가지 정도의 기본색만 있어도 다양한 색과 톤으로 혼색할 수 있다.

아크릴물감은 수용성이므로 수채화물감이나 포스터컬러를 섞어서 독특한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유화물감과 혼합하는 것은 금물이다. 또 유화물감으로 그린 후에 아크릴물감을 사용하는 것도 안된다. 그러나 아크릴물감으로 바탕을 칠하고 완전히 마른 뒤 유화물감을 사용할 수는 있다.

아크릴물감은 현대에는 디자인용으로 널리 쓰인다. 방수성이 있고 포스터컬러와 같은 종래의 물감보다 안전하며 더욱 선명하기 때문에 팝아트·일러스트레이션·스타일화 등의 분야에서 좋은 효과를 낸다.

4) 학습지

반 / 번호		이름	
단원	단체 사진 그리기	학습 주제	협동 학습을 통한 관계성 회복
질문	나의 생각		
자신이 그린 친구에 대한 평상시의 생각과 그림을 그리며 느낀 친구의 특징을 느낀 점을 작성하시오			
친구가 표현한 자신의 얼굴에 대한 느낌은 무엇인지 작성하시오			
인상 깊었던 친구의 작품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작성하시오			

<p>완성된 개성 있는 단체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서술하시오</p>	
<p>협동학습을 통해 느낀 점을 서술하시오</p>	

VI. 결 론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며 다양한 문화적 정보와 경험들은 그 의미가 새로워지고 있다. 지구촌이라는 수식어에 맞게 국가와 사회 간 문화는 차이를 넘어 점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문화를 포함하는 우리의 환경은 점차 다원화, 다문화 되고 있다. 다문화 사회란, 다양한 인종, 종교, 나이, 경제적, 사회적 지위, 신체적 장애, 직업, 성별, 문화방식 등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말한다. 사실 이런 사회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상위문화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소수문화는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왔다. 상위문화 중심의 사회에서 문화적 우월감과 열등감의 존재는 소수문화의 정체성 혼란과 상실을 가져왔으며, 다양한 문화의 혼재 속에서 자문화중심의 사고방식은 문화적 갈등을 낳았다. 따라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필요로 하며, 자신과 자신이 태어난 곳이 세상의 중심이 아님을 깨닫고, 올바른 정체성 형성과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 다문화주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한편, 다원화 시대의 산물이자,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국제화를 대표하는 사조로서 미술교육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의 기류 속에 존재하며 점차 탈구조적 탈사회적으로 그 특징이 변해감에 따라, 팝아트, 페미니즘 미술, 신 표현주의와 같은 의미 전달을 중심으로 하는 미술양식들이 영향을 받아 나타나게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적 다원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은 학생들이 다른 나라의 미술품을 비롯한 다양한 작품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부함으로써 그 나라와 학생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와 더불어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각 국가의 문화에 대한 주체성을 보

존하는 것이다. 오늘날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는 한국사회 역시 다문화 사회로 급변하고 있다. 이전의 한국 사회가 서로 같은 부분을 강조하여 단결과 통합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다문화주의 사회로써 서로 다른 부분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강조하여 문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세계문화 시민의식을 갖춘 선진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뱅크스는 우리가 다양한 삶의 가치, 방식, 신념 등을 경험하고 그것을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과정중심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결과중심적인 교육이 아닌 과정중심적인 교육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결국 단편적인 소재나 활동보다는 포괄적이며 통합적인 방법으로 교육에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주의의 핵심인 문화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끝없이 새로움을 추구하고 옛것을 버리기도 하며 유기체처럼 변화한다. 따라서 고정되고 정형화된 문화에 대한 접근방식은 피해야하고, 학생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교사는 가르치는 학생들의 문화, 특히 그 학생들이 소수 집단에 속해있을 때는 더욱 그들의 문화를 배우며 이해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

미술은 정신과 신체, 이성과 감성의 통합으로써 개인의 전인적인 발달에 도움을 주며 자신에 대한 인식과 자각을 통해서 사회화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미술교육은 다문화주의 아이들에게 중요한 교과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의 지도방안에 대한 연구로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미술 수업의 지도안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2차시로 계획하였고 이 수업에서는 표현활동도 중요하지만 크리틱(critic)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 교류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시간을 늘렸다.

학생들은 협동학습을 통하여 타인과 그리는 대상에 대한 관조와 이해를 통해

서 서로 다른 점들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학생들이 개인의 작품과 작품을 모두 퍼즐 맞추듯 맞추어 또 하나의 전체 작품이 되는 완성되는 것을 통해서 큰 작품도 여럿이 나누어 하면 쉽게 금방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대형 작품을 했다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들의 특징과 개성을 알고 서로의 생각을 교류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이제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도 필요로 하는 다문화주의 교육은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하며 현장에 적극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적극적으로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와 표현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자신과 다른 문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자세로 함께 공존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가 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단지 프로그램 연구를 제시한 것에서 그쳤지만, 현장에서 마땅히 검증이 이루어져서 보다 나은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된다면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다문화주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동욱.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현암사. 1995
-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문학과 지성. 1990
- 김춘일. 팝아트와 현대인. 열화당, 1976
- 로버트. 옛킨스. 박진선 역. 알기 쉬운 현대미술의 개념풀이. 시공사. 1994
- 박성혁 외.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정책 추진 현황 과제 및 성과 분석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과제보고서. 2007
- 사와 타카미츠. 홍성태 역. 자본주의 재정의 자본주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푸른숲. 1996
- 윤종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교육행정과 학교 경영. 원미사. 1998
- 이용우. 외 30인. 현대 미술 세기의 전환, 시각문화. 1993
- 이지현. 외 7인. 미술사 연구회. 20세기의 서양미술. 조형교육. 2001
- 이합 핫산(Ihab Hassan). 정경호, 이소영 역. 포스트모더니즘 개론-현대문화와 문학이론. 한신문화사. 1991
- 조영달.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조사 정책연구과제. 서울교육인적자원부. 2006

논문

- 권민영. 학습자 중심의 다문화 미술교육 방법.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7
- 김교민. 다문화 교육의 이해를 통한 전통미술 수업지도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미영. 초등학교 다문화 미술교육의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민영. 정서를 통한 다문화 미술교육 지도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민진. 다문화 미술교육 이론 및 동향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보라. 독일 신표현주의의 형상성 연구 1세대 작가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김영민. 다문화주의의 미디어 미술교육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선아. 다문화 미술교육에 관한 미술교사의 인식도 조사 및 실태분석.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인정. 다문화 미술교육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윤희. 포스트모더니즘적 영상표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지혜. 다문화 시대에 입각한 초등학교 전통미술 교육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혜숙. 미술교육에 있어 다문화적 접근과 적용, 춘천교육대학교 예체능연구회, 1997
- 도진아. 포스트모더니즘을 통한 헤어아트 조형연구 : 한국 현대 조각 예술을 모티브로. 서경대학교 대학원 2008
- 문다래. 다문화 미술교육 분석과 수업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민원. 다문화 미술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7차 교육과정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박순영. 현대미술에 나타난 페미니즘 미술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박은덕. 미국의 다문화 미술교육, 미술교육 제5호
- 박정애. 다문화를 위한 사회학과 인류학의 방법. 미술교육 제3호. 1993
- 손지영. 다문화적 관점의 미술 감상 교육 연구:<아시아 큐비즘 - 경계 없는 대화>전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손지현. 다문화 미술교육의 확장. 미술과 교육논총. 2006
- 신보라. 독일신표현주의의 형상성 연구 -1세대 작가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석사학위논문. 1997
- 양정숙. 포스트모더니즘과 다문화 미술교육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 안정하. 다문화 미술교육의 의미와 실천적 방안-초등학교 미술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오연경. 다문화 가족 상담을 위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역할.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윤은주. 포스트모더니즘의 일리성과 교육.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윤종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교육행정과 학교 경영. 원미사. 1998.
- 이강일. 포스트모더니즘을 통해서 본 통합의 미술 교육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나영. 다문화 미술교육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미정. 다문화 미술교육에 기초한 고등학교 미술 감상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

-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상건. 포스트모더니즘과 미술교육 : 다문화 시대 미술교육의 방안 모색.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순주. 초등미술에서 포스트모더니즘 감상교육에 관한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옥선. 맥피(McFee)의 미술교육사상과 방법론 연구 다원주의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이지연. 초등학교 다문화 미술교육의 이해와 수업 방안 연구 : 초등학교 4, 5, 6 학년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임정란. 페미니즘 회화연구 : 천경자 작품을 중심으로.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제주희. 팝아트를 통한 일러스트레이션 표현연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조영달. 학교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실태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과학기술부. 2008
- 최신영.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표현양식을 활용한 미술교육방법 연구-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편미라. 포스트모더니즘 교육관 탐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현인자. 한국 여성주의 미술과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홍성규. 다문화 교육에 기초한 중학교 미술 지도방안 연구- 미적 체험 활동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웹 사이트

중앙다문화교육센터 <http://www.damunwha-edu.or.kr>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위키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ED%9E%88%ED%94%BC>

<http://blog.naver.com/pisces35?Redirect=Log&logNo=140025130304>

<http://blog.naver.com/sunmodol?Redirect=Log&logNo=120035952471>

<http://blog.naver.com/kkl4427?Redirect=Log&logNo=35806659>

<http://blog.naver.com/pisces35?Redirect=Log&logNo=140025130304>

<http://blog.naver.com/soncw79/10009911104>

<http://blog.naver.com/hongchajs/140046532775>

<http://blog.naver.com/morii77/memo/100116165632>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16118>

<http://100.naver.com/100.nhn?docid=181203>

<http://100.naver.com/100.nhn?docid=741411>

<http://100.naver.com/100.nhn?docid=45547>

<http://100.naver.com/100.nhn?docid=132121>

<http://100.naver.com/100.nhn?docid=132121>

ABSTRACT

Art Education Plan to Nurture Postmodernism and Multiculturalism

Choi Younghee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oday our society is greatly influenced by postmodernism. This movement began in the late 20th century with its emphasis on glob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It brought about changes to our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In order to accept and modify these changes quickly and wisely it is very important for us to deepen our understanding, ideas and views about other cultures. Since we Koreans have a strong mindset wherein we are descendents of Dangun, making us one race, we often fall into a blind nationalism. Today, however, we are more exposed to diverse cultures. We need to have a objective sense of sovereignty and critical thinking in this society and take a broad view of those cultures through diverse viewpoints.

Multicultural education is rapidly spreading in Korean society but in real life people lack an understanding of different cultures. They often

mistakenly believe multicultural education is the study of racial discrimination. In art education the reality is that teaching multiculturalism is focused on looking at artworks from other cultures, developing artistic techniques or nurturing creativity. However, we need to cultivate the ability to recognize other cultures and understand their characteristics. Our pedagogy needs to adapt; to teach students how not to be a slave of fixed ideas and prejudices and how to equip themselves with an unbiased viewpoint and way of thinking.

In order for u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postmodernism and the art that influenced multiculturalism and became its theoretical background, this study will investigate its characteristics through a few representative art forms of postmodernism. Then it will delve into the concept of multiculturalism educatio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multicultural art education. In addition, it will combine the necessity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the contents of current textbooks to support multicultural art education, and will suggest a learner-oriented teaching plan. This teaching plan may not be complete, but students will be able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class and have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learning. While directly participating in the class students can learn about other people and face their own prejudices. This teaching plan will find its meaning wherein students will have an opportunity to respect each other's differences and learn from them by understanding and recognizing other people's cultures and ideas.